Vol. 586
2021. 01.04-10

공감

gonggam.korea.kr
스캔하면 〈공감〉 누리집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특집·이날치 성공으로 본 한국판 뉴딜_24
2021 대한민국 대전환·❶G7과 어깨 견주는 경제력_14
잘못 알려진 부동산 대책 바로보기_48


저기있잖아,

희망을 전하는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상서로운 기운이 넘친다는 흰 소의 해입니다. 오랫동안 소는 우리 겨레와 무척 가깝게 지내왔던 동물입니다. 가난한 우리네 살림살이의 든든한 밑천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덩치의 소를 제 식구처럼 귀하게 대접하며 지냈던 시절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제가 본 소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하면서도 순박한 모습 때문에 소는 위압적인 체구에도 불구하고 어린 제게 무척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소는 사납지 않으면서 강인하고, 느린 듯 보이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에 의로운 소가 등장하고, 국민화가 이중섭이 나라 잃은 슬픔과 전쟁의 비참을 〈황소〉와 〈흰 소〉 같은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은 어디쯤일까, 막막한 마음에 조바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쥐의 해가 끝나고 흰 소의 해를 맞이하고 보니, 느린 걸음이지만 천릿길을 간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정신이 새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가 우선이라는 자세로 흐트러짐 없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내세운 성공적인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성장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와 재정적자 최소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3.2%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전반에서도 기적 같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석권, 방탄소년단의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는 물론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원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 흑자, K-웹툰 미국·일본 디지털만화 시장 1위 등 튼튼한 문화 기반을 갖춘 신한류가 이제 세계인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방역과 보건·의료, 민주주의, 국민의식, 문화 전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기 앞에서 더욱 하나 되어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정부와 우리 모두 쉼 없이 헌신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노력이 저에게 유독 크게 다가온 것은, 소의 해 신축년이 품고 있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우리는 위기를 헤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우보천리의 교훈이 비단 성실과 인내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이 옳다면 단 한 걸음도 헛되지 않다는 믿음, 그 믿음이 신축년 새해가 우리에게 선사해준 가장 큰 희망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길의 끝에 찬란하고 환한 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겪었던 어려움이 새해에는 더 큰 성취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모쪼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양우(발행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어도



● **서유미** 소설가
2007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 두 권의 소설집과 여섯 권의 장편소설을 냈다.

다른 강의는 어떤지 몰라도 문학 수업은 강의실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읽은 소설과 에세이의 인물과 문장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려면 모이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여겼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강의를 멈추거나 개강을 미루고, 마스크를 쓰고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대면 강의를 이어왔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단계가 나아질 때까지 휴강하거나, 강의를 이어가려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새로운 해에도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으로라도 수업을 이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에 나는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고, 몇 주 동안 모니터 위에 떠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설의 기법과 문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모니터 앞에 앉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일에 익숙해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편한 차림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 부드럽고 여유가 넘쳤다.

처음에는 화면에 얼굴이 안 나오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고, 오디오 연결이 서툴러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디오와 오디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수업을 들었다. 이동 중이나 출장지에서도 결석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출석률이 더 좋아졌다. 집이 멀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수업을 들으러 오던 분들은 이동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게 되었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도 시차만 맞으면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업 전에 미리 접속해서 준비해 둔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았다. 바이러스의 재앙이 비대면 시대를 만들었지만 기술의 발달 위에서 우리는 새롭게 이어지고 편리를 경험한다.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게티이미지뱅크

못하지만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손잡을 수 없고 어깨에 기댈 수 없다.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강의실에 모여 수업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수업이 편해서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 물었을 때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좀 복잡한 문제였다.

마스크를 쓰고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하며 수업하던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을 경계하고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경험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누군가 너무 자주 마스크를 내리고 물을 마신다고, 누군가 쓴 마스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의 기침 소리가 신경 쓰인다며 나에게 혹은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수업을 쉬면 불만스러워했고 휴강하지 않고 이어가면 불안해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소설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오해가 생겼다. 그때 나는 수업을 하며 처음으로 마음을 다쳤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이상은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온라인 수업은 그런 점을 해소해 주었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내가 흔쾌히 온라인 수업의 편을 들지 못한 것은, 모여서 함께 수업하던 날들의 왁자한 유쾌함과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말할 때 모두가 음 소거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비디오를 정지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강의실 안에서 둥그렇게 앉아 눈을 맞추며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가끔은 커피와 빵도 나누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지만 나는 그렇게 다시 모이고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

52



공감

훈민정음체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제호입니다.

Vol. 586
2021. 01.04–10

01 **신년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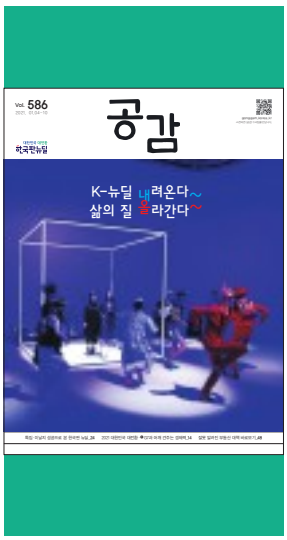
(共)공감
02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어도

국정종합
06 "백신접종 지연 염려 사실 아니다… 2월부터 접종"

힘내라 대한민국
08 "소상공인·고용취약층 등에 3차 재난지원금 9조 지원"
12 백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2021 대한민국 대전환 ❶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력
14 방역으로 하나된 힘 경제 반등 이끈다
18 정보그림/방역·경제 모두 앞서간 대한민국
20 'K-뷰티' 등에 업고 전 세계 화장품 시장 평정

특집_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한국판 뉴딜
26 한국판 뉴딜이 바꾼 청년의 일상과 미래
30 한국판 뉴딜이 저임금, 초단기 일자리만 만든다고요?
32 이날치 성공에서 한국판 뉴딜의 길을 본다



네이버 온스테이지

표 지 이 야 기

K-뉴딜 내려온다~
삶의 질 올라간다~

"뉴딜 내려온다/ 한국판 뉴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판 뉴딜/ 경제 살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판 뉴딜/ 차르르르~"
국악 기반 팝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를 개사해 만든 한국판 뉴딜의 라디오 광고다. 이날치의 음악 정신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철학과 닮았다. 우리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융합한, 독특한 개성의 음악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이날치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가야할 길을 찾아본다.

5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44

연재_ 공감 우리말 ❶
34 새해는 코로나19가 물러나길 바라요

홍화정 만화_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❶
36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내 삶을 바꾸는 정책
38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
40 고위공직자 범죄 예방하고 국민 인권 더 두텁게 보장
42 이주의 정책뉴스

내 삶을 빛내는 문화
44 어서 와~ 탈춤 '한여름 밤의 꿈'은 처음이지?

주택시장 안정대책
48 잘못 알려진 부동산 정책 네 가지 바로보기
50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공공주택의 진화'

2021년 예산
52 '한 달 살기' 좋은 숙소 만들어 국내 여행 활성화

연재_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⓬
판화가 오윤
56 민중미술 넘어 민족의 한을 새겨낸 '도깨비'

연재_ 차우진의 '문화 트렌드 리포트' ㊷
58 비대면 · 팬덤 · 글로벌… 문화계 '3대 열쇳말'

연재_ 미래 이야기 ㉕
60 디지털의 역기능 최소화해야

58

연재_ 김신의 '고마워 디자인' ㊾
62 현대 디자인의 탄생

참여공감
64



발행일 2021. 01.0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박양우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다원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28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다. 우리는 당초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신접종 지연 염려 사실 아니다 2월부터 접종"

그러면서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투명한 정보 공개다.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보안 외에는 정부의 방침을 그때그때 밝혔고, 그 방침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치료의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백신 개발에서는 아직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으리란 전망을 그동안 밝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더나 백신 2분기 공급… 총 5600만 명분 확보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통화를 하고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애초 정부가 모더나와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000만 명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2021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체결할 수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되도록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 계약에 더해 모더나와 계약이 이뤄지면 총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임상실험, 연구개발(R&D)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을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분기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

정부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을 2~3월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등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12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2~3월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이전까지 마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리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접종계획은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3월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적어도 3분기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까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백신에 대한 확보와 접종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백신의 종류와 도입 시기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백신 구매를 추진해 왔으며, 선구매한 백신은 1분기부터 차례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백신 개발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민간 합동 백신 도입 전담팀(TF)을 본격적으로 구성·운영해 왔다"면서 "실질적으로 백신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되어 백신 도입 전담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점, 세계 각국의 수요 증가로 공급량과 공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국내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개별 제약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백신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종 시행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초저온 냉동고를 배치해 별도의 접종센터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냉장보관 유통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에는 기존의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에 부합한 기관을 지정해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백신은 통상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또 교차접종을 방지해야 하는 점들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백신의 수급관리, 접종대상 국민에 대한 사전안내와 예약접수, 접종 등록 및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와 추적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찬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고용취약층 등에 3차 재난지원금 9조 지원"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에 이르며 설 전에 지원 대상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2021년 1월 초부터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580만 명에 9조 3000억 원…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꾸러미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 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 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에 50만~100만 원

이번 대책의 두 번째 핵심은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혜택을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대상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혜택을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2021년 1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기반 시설을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 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한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 지역 파견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며,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도구(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부족 등 대응 위해 1분기 8000억 지원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 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 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 꾸러미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2021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안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179개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한다. 겨울스포츠 시설 안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더불어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2020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2021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한다.

1월 11일부터 지급… 설 전 90% 지급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 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2020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021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대상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찬영 기자

백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인류사에 획기적인 또 하나의 사건은
초고속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백신 관련 개념들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살펴본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알 고 있 는 것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1차 목표는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 집단(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자와 고연령자)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가별로 접종 우선순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은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고연령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은 의료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6월부터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분과위원회가 매주 열린다.

한편 접종 1순위는 고위험 시설 노인과 시설 종사자, 1차 방역 대응요원, 65세 이상 노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인 1000만 명 가량이다. 이후에는 성인 만성질환자, 일반 성인 등의 순서로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2021년 후반기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

=그렇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 후 생긴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되어 다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백신으로 인한 면역반응이 더 오래갈 것으로 생각된다.

–반드시 2회 접종을 해야할까?

=2회 접종을 권고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이 충분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접종 간격을 지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만약 2차 접종시기를 넘겼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접종을 하도록 한다.

–백신의 안전성은 믿을 수 있을까?

=백신은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을 통하여 평가한다. 이 중 3상에서는 접종군과 위약군의 이상반응 종류와 발생 수준 등을 비교 평가하는데, 전령아르엔에이(mRNA)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접종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1차 보다는 2차 접종 후에 발열,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이 좀더 많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3상 시험중에 횡단성 척수염 발생자가 있어 잠시 임상시험이 중단된 적이 있었으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시험이 지속되었다. 이후에 브라질에서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나 임상시험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망자는 백신 접종군이 아니라 위약 접종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00% 안전한 백신이나 약물은 없다. 임상시험보다 많은 대상자가 실제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알지 못했던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접종하는 나라들의 자료도 세심하게 평가해 안전한 접종 방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접종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접종을 받아야 하나?

=원하지 않으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접종을 하는 것이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고된다.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은 중국(3개), 러시아(2개), 미국(4개), 영국·독일(1개) 등이다. 이는 국가 주도 연구소이거나 다국적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제넥신(DNA백신, 1/2상), 진원생명과학(DNA백신, 1상), SK바이오사이언스(단백질 기반 백신, 1상), 셀리드·LG Chem(벡터백신, 1상), 국제백신연구소·이노비오(미국) 협력 (DNA백신, 2상)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면역이 오래가지 않아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백신에만 기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도 국가는 되지 못하였으나 이 기회에 백신 개발 수준을 끌어올려 백신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아 직 까 지 모 르 는 것

–백신 효과는 얼마나 오래갈까?

=아직은 충분한 자료가 없다. 임상시험 결과는 대부분 접종 후 2개월까지 결과다. 2021년 여름쯤 되면 3상 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6개월이상 장기 효과에 대한 보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아도 될까?

=아직은 충분한 자료가 없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전에 유전자증폭(PCR)검사로 감염자 확인을 권하지는 않고 있으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추후에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백신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접종 전 PCR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바이러스를 전파할까?

=아직은 충분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라고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면 백신을 맞았어도 효과가 없어질까?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보다는 드물지만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보고된 변이가 현재 개발된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임신부도 안전할까?

=지금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중에 임상시험대상자로 임신부를 포함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임신부나 태아에 위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임신부인데 접종 대상군으로 선정되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충분한 정보를 받아보고 접종하도록 권하고 있다.

–아이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나?

=아직 임상시험 결과는 없으나 화이자는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2020년 10월에 시작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2021년 여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자료: 정책브리핑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방역으로 하나 된 힘

2020년 지구촌은 코로나19의 늪에 빠져들었다. 미증유의 경제적 충격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전시 사태에 준하는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바이러스와 전쟁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경제적 충격 방어에도 성공적인 나라로 떠올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국가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고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배려의 힘이 무엇보다 컸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나라 안에서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대에는 '모두가 안전하기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엄중한 현실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위상과 국민 자부심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가 이끌고 민간이 동참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설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 반등 이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침체 방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 방역이냐 경제 살리기냐를 놓고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한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침체 방어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충격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비관과 낙관의 시각이 교차한다. 역사상 최악이었던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경제는 잠시 침체했다가 다시 대칭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침체 방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과제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 침체를 감수해야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방역이냐 경제 살리기냐를 놓고 세계 각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침체 방어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 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적 위축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 및 성장률 하락 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OECD는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하반기부터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도 빨라졌다며 2020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전 세계 평균 전망치인 −4.2%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 1위다. 2021년 경제 전망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전 세계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지속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은 국가의 역할과 정부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았다. 대형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했다. 세계 주요국 정부는 2020년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금리를 이미 0%대로 내려 정책 공간이 제한된 각국 중앙은행들도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수단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렸다.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은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부양 수단이라기보다 코로나19 유행이 불러온 일상생활의 붕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 정책에 가깝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 적자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장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재정지출을 가파르게 늘렸다. 네 차례의 추가경정(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투입한 재정이 2019년 기준 GDP 대비 약 13%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GDP 대비 13.9%), 일본(22%), 영국(37.7%) 등에 견주면 약한 확장재정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규모는 GDP 대비 2.5%로, 미국(10.7%)이나 일본(16.9%),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9.4%)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 각국의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확장재정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 경제 위기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이라는 목표

코로나19에 짓눌려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2021년 반등의 계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여러 경제지표도 한 방향으로 '경기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2020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모두 11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때문에 그동안 움츠렸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처럼 밝은 지표들을 받아들고 보니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 국민

한국의 방역이 코로나19 통제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1월 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알림판이 걸려 있다. | 한겨레

이 오랜 기간 불편함을 견디고 협조해줘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었고 그 덕에 경제활동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충격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

그러나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라는 목표에 확실하게 이르기까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깊어진 그늘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다가올 듯한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결코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빚어진 위기의 쏠림 현상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임시·일용직, 자유직업자 등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기존 취약계층에 쏠렸다.

이 같은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하는 공식을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포용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뒤따랐다.

투자·소비 진작 통한 중기·자영업자 살리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국내 산업생산과 민간소비 생태계에서 풀뿌리 구실을 하는 존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는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뿐이지만, 세계적 유행의 장기화로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고사 위기에 몰린다. 힘들게 견디다 기초체력마저 고갈돼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가 길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대규모 도산이 발생하면 산업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고용의 양적, 질적 악화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피해에 대해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및 지원과 함께, 경기 반등의 계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소비 진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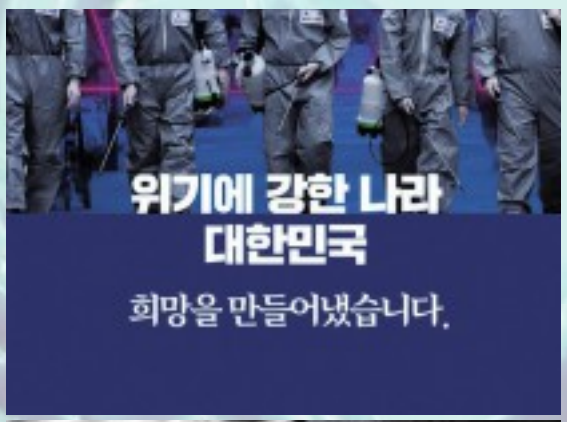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구상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자 청사진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세 개의 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포부다.

한국판 뉴딜은 지금까지 진행한 구상 단계를 넘어 2021년부터 본격 추진 단계로 접어든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기틀인 지역균형 뉴딜도 추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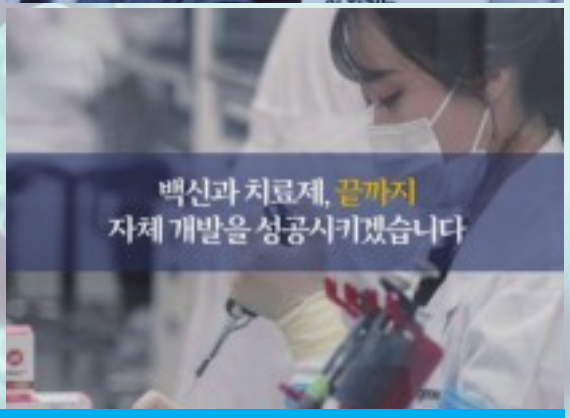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 한국의 방역이 코로나19 통제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박순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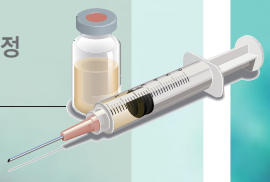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백신 개발 현황

기반 기술	제약사	임상 인원	연간 생산량	비고
핵산 백신	모더나	3만 2000명	5억 명분	접종 시작
	화이자–바이오엔테크	4만 4000명	5억 명분	
합성항원 백신	노바백스	1만 명	3억 명분	임상 3상
전달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3만 명	5억 명분	접종 시작
	존슨앤드존슨	6만 명	10억 명분	승인 후 공급 예정
	캔시노	4만 5000명	2억 명분	
	가말레야 연구소	4만 명	5억 명분	
불활화 백신	시노팜(우한생물제품연구소)	1만 5000명	1억 명분	접종 시작
	시노팜(베이징생물제품연구소)	1만 5000명	1억 명분	
	시노백	8000명	3억 명분	브라질 보건부에 승인 요청



핵산 백신

전령아르엔에이(mRNA)를 이용해 유전물질을 합성한 뒤 주사해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함

합성항원 백신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함

전달체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원을 합성해 주입함

불활화 백신

죽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해 감염 위험을 없앤 백신.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바이러스의 번식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백신(바이러스 독을 약하게 만든 백신)보다 덜할 수 있음

1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자료: 행정안전부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 대상 33개국, *1점 만점



2

OECD 중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 1위



3

DKG 코로나19 안전한 나라 세계 3위

자료: 싱크탱크 DKG 연구보고서
(단위: 점)



※ 250개국 대상 6개 분야 평가(보건 대비·검역효율·응급 대비·감시 감지·정부효율·국가 취약성)

방역·경제 모두 앞서간 **대한민국**

❶ 대한민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위에 올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2020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디지털 경쟁력'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❷ OECD 중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 1위

유엔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20년 6월 발간한 '지속가능한 개발 2020(Sustainable Development 2020)' 보고서에서 OECD 33개 국가 중 한국을 코로나19 모범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적표는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❸ DKG 코로나19 안전한 나라 세계 3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16일 "〈포브스〉지가 홍콩 기반의 싱크탱크 DKG(Deep Knowledge Group)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DKG의 9월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업데이트'에서 한국은 당초 10위에서 7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정치, 보건·의료의 안전성을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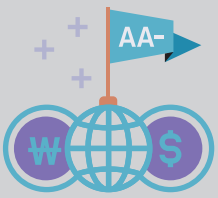
4

IMD 국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 3개 분야 52개 지표 측정해 평가, 63개국 기준

2019		2020년		전년 대비 순위 변동
1	미국	1	미국	–
2	싱가포르	2	싱가포르	–
3	스웨덴	3	덴마크	⬆ 1
4	덴마크	4	스웨덴	⬇ 1
5	스위스	5	홍콩	⬆ 3
6	네덜란드	6	스위스	⬇ 1
7	핀란드	7	네덜란드	⬇ 1
8	홍콩	8	한국	⬆ 2
9	노르웨이	9	노르웨이	–
10	한국	10	핀란드	⬇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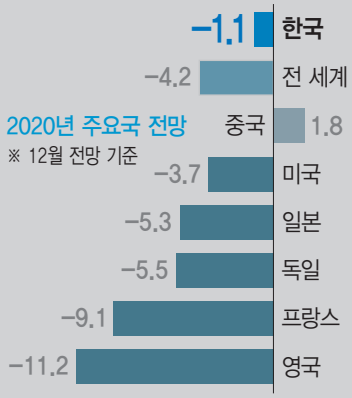
피치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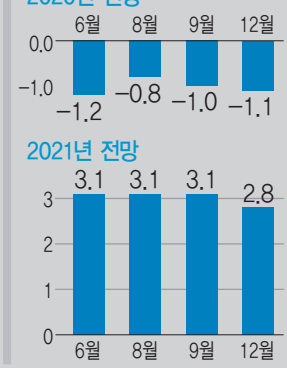
※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평가 유지, 무디스는 Aa2(안정적)로 2015년 12월부터, S&P는 AA(안정적)로 2016년 8월부터 평가 유지

6

OECD 중 경제성장률 1위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OECD, 기획재정부





7

외평채 역대 최저금리 성공적 발행

자료: 기획재정부 ※ 총 약 14억 5000만 달러 규모

달러화 10년물		유로화 5년물
6억 2500만 달러 (약 7400억 원)	발행금액	7억 유로 (약 9800억 원)
1.000%	표면금리	0%
1.198%	발행금리	–0.059%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방역 및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예외적으로 방역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선방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방역 및 경제 관련 평가 내용을

정보그림 뉴스로 만나봤다.

게티이미지뱅크

❹ IMD 국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이 3개 평가 분야에서 순위가 전부 올라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 준비도' 분야 가운데 전자 참여지수와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❺ 피치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2020년 4분기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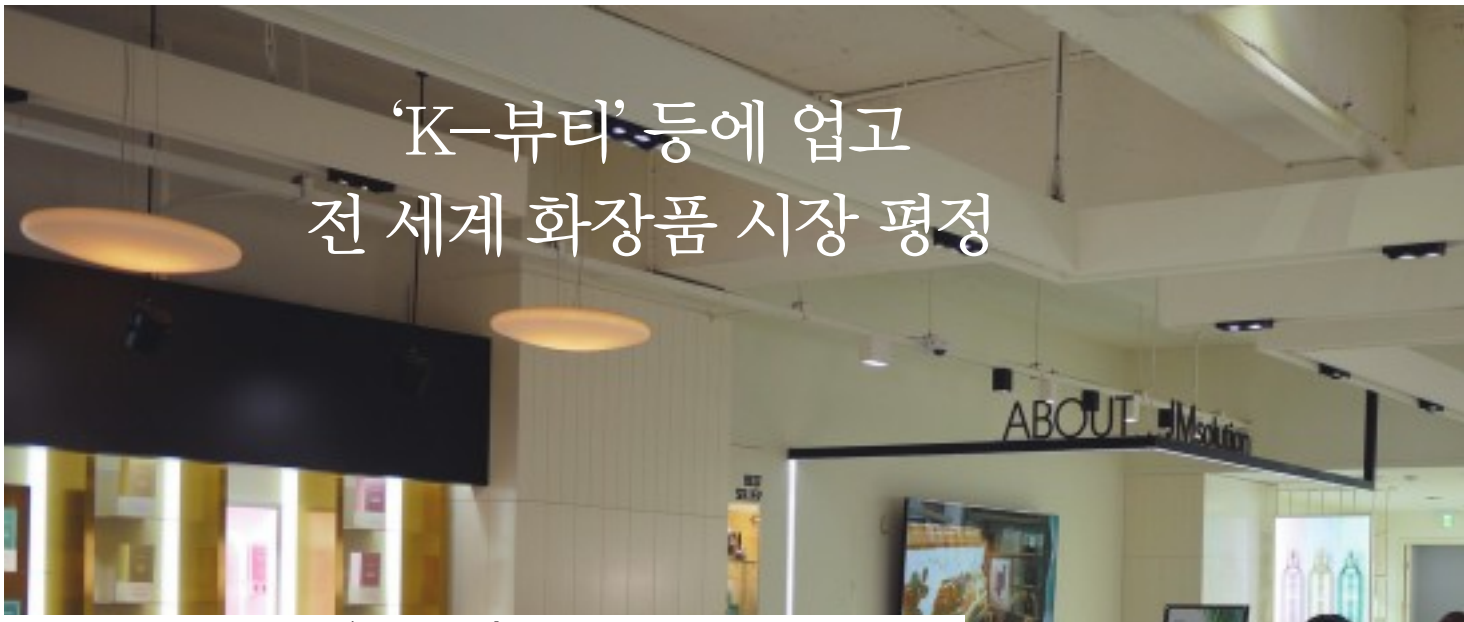
❻ OECD 중 경제성장률 1위

OECD는 2020년 12월 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1%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2위에 해당된다. 최근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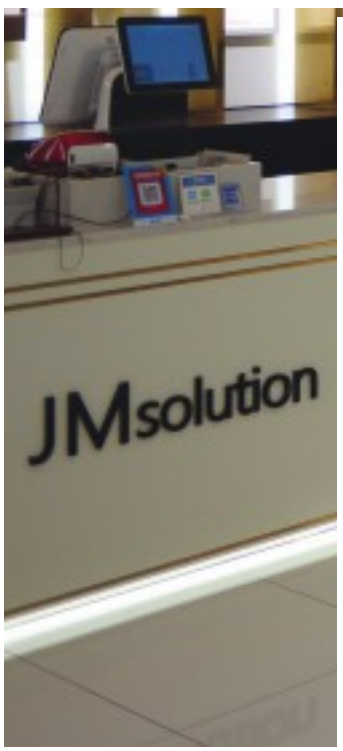
❼ 외평채 역대 최저금리 성공적 발행

정부가 역대 최저금리로 약 1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뉴욕에서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와 7억 유로(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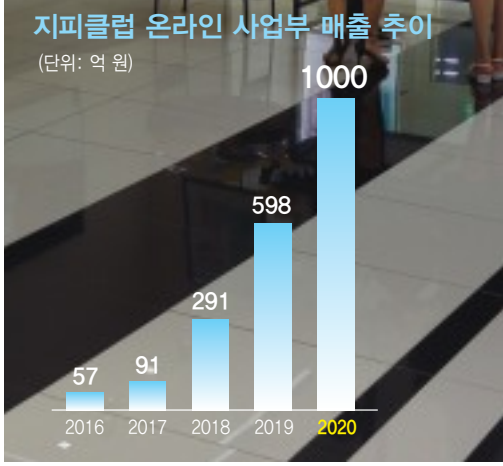
‘K-뷰티’ 등에 업고 전 세계 화장품 시장 평정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



‘6·18 쇼핑축제’는 징동닷컴, 티몰 등 중국의 온라인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행사다. 2020년 6월 진행된 6·18 쇼핑축제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글로벌 마스크팩 브랜드는 한국 화장품인 ‘제이엠(JM)솔루션’이었다. JM솔루션의 ‘물광 에스오에스(S.O.S) 링거 마스크팩’은 티몰 글로벌(Tmall Global)의 글로벌 마스크 브랜드 부문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다.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에 수분과 보습을 처방해 피부를 보호하는 집중 수분 충전 마스크팩으로,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중국에서 자극 없이 피부를 회복해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JM솔루션은 하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행사인 ‘광군제’에서는 마스크팩뿐 아니라 앰풀, 선 케어 제품, 세안(클렌징)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K-뷰티 브랜드로서 중국 내 경쟁력을 입증했다.



‘꿀광 마스크팩’ 5년 만에 6억 장 판매

JM솔루션은 국내 벤처기업인 ㈜지피클럽(GP Club)이 2016년 내놓은 화장품 브랜드다. 2003년 창업 당시만 해도 비디오게임을 유통했던 ㈜지피클럽은 중국에서 게임 유통을 하면서 K-뷰티의 성공 가능성을 봤다. 2013년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유통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다. 중국 시장 개척에 두각을 보이면서 다른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유통도 맡게 됐다.

이렇게 구축한 탄탄한 중국 유통망을 바탕으로 좋은 품



JM솔루션은 하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행사인 '광군제'에서 마스크팩뿐 아니라 앰풀, 선 케어 제품, 세안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K-뷰티 브랜드로서 중국 내 경쟁력을 입증했다.



JM솔루션 서울 명동점 안과 밖 | 한겨레

질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과 손잡고 독자 브랜드인 JM솔루션을 내놓았다. 먼저 수분 기초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주목을 받았고, 중국 사람들이 피붓결을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해 '광채'를 강조한 마스크팩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꿀광 마스크팩'은 2016년 발매 이후 2020년까지 6억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왕훙'과 협업 생방송으로 매진 행렬

JM솔루션의 중국 온라인 마케팅은 누리소통망(SNS)의 유명인을 뜻하는 '왕훙(網紅)'과 협업이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검색·구매하는 온라인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왕훙은 중국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JM솔루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활발히 소통하는 왕훙과 지속적으로 협업했다. 2020년 11월 왕훙 '신바'와 두 차례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해 모두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 누리소통망인 콰이쇼우(快手)에서 팔로워 7060만 명을 보유한 슈퍼 왕훙인 신바는 첫 방송에서 행사 제품인 액티브 젤리피시 마스크와 링거 마스크를 10분 만에 약 900만 장 판매했다.

이에 앞서 JM솔루션은 중국 왕훙 '따루루'를 초청한 틱톡 생방송에서 모두 87만 건의 구매와 136억 원의 매출을 올려 동시간대 타오바오 브랜드 판매량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따루루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며느리 콘셉트로 다양한







1 중국 랴오닝성 JM솔루션 매장 2 2019년 일본 드러그스토어 쇼의 'JM솔루션 재팬' 부스 3 태국 쇼핑몰의 JM솔루션 매대 4 중국 네이멍구 JM솔루션 매장 | ㈜지피클럽

5 마스크팩 6 물광 7 윤광 8 청광 9 꿀광 | ㈜지피클럽

한국 제품을 중국에 소개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생방송에서 JM솔루션의 인기 제품인 꿀광·링거·액티브 마스크팩뿐 아니라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김태희 화장품'으로 알려진 '스파 크림', '청광 마린 진주 클렌저 펄' 등 스킨케어 제품 또한 준비한 물량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 판매 실적 (2019년 기준)

마스크팩	
꿀광 로얄 프로폴리스 마스크 블랙	6억 2400만 장
물광·SOS·링거 마스크 블랙	3억 7400만 장
청광 마린 딥 모이스처 마스크 펄	1억 7900만 장
기타	3억 900만 장
선케어	
선 스프레이	1억 7800만 장
선 스틱	300만 장
선 크림	26만 장

마스크 팩 & 선케어 판매량 약 15억

일본서도 '앳코스메' 클렌징 부문 1위

㈜지피클럽은 중국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과 미국, 유럽, 중남미 시장까지 15개 나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JM솔루션 재팬'이라는 브랜드로 일본 시장을 공략해 왔다. 마스크팩뿐 아니라 기초 라인, 메이크업 라인 등으로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했다. 특히 일본 전용 세안 제품인 'H9 히아루로닉 클렌징워터 아쿠아'는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간단한 클렌징 제품으로, 클렌징 워터 사용만으로 메이크업을 간편하게 지워낼 수 있어 발매 초기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일본 최대 화장품 정보 누리집인 앳코스메(@cosme)가 2020년 2~4월 집계해 발표한 '2020 앳코스메 월간 코스메틱 랭킹'에서 리퀴드 클렌징(액체 형태의 세안 제품)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JM솔루션 재팬은 현재 '로프트(LOFT)' '돈키호테' 등 일본 유명 쇼핑몰과 드러그스토어(의약품과 함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포함해 일본 전역









㈜지피클럽은 중국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과 미국, 유럽, 중남미 시장까지 15개 나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4

30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 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공격적 영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홈쇼핑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2019년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이 같은 해외시장의 성과에 힘입어 ㈜지피클럽은 2011년 1000만 달러 수출의 탑, 2016년 2000만 달러 수출의 탑, 2017년 3000만 달러 수출의 탑에 이어, 2019년에는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무역의 날 기념식'은 매년 해외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국내 기업을 선정해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지피클럽은 JM솔루션뿐 아니라 기초화장품 브랜드인 '강블리', 20대 여성을 겨냥한 '제이투엠투(JtwoMtwo)' 등 다른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또한 유통 분야에 특화된 장점을 살려 생활용품 브랜드 '강블리 라이프'로 소형 생활 가전부터 게임, 반려용품까지 700여 종에 이르는 생활·건강 제품을 판매하며 사업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16년 57억 원 수준이었던 온라인 사업부의 매출은 2018년 291억 원, 2019년 598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낙연 기자

유니콘 기업 등재 한국 11개로 세계 6위

2019년 6월 말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시비 인사이트(CB Insights)'는 ㈜지피클럽을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했다. 유니콘 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이룬 비상장 기업을 뜻한다. 시비 인사이트가 지금까지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한 한국 기업은 모두 11개로 유니콘 기업 보유 수에서 한국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비 인사이트의 2020년 12월 29일 기준 집계를 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500개이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11개였다. 미국 기업이 242개로 1위였고 중국이 119개로 2위였다. 이어 영국(24개), 인도(24개), 독일(12개) 순이었다. 한국은 이스라엘(8개, 7위)과 일본(4개, 11위)보다 앞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0월 국내 유니콘 기업은 모두 20곳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조 원이 넘었지만 시비 인사이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국내 벤처투자와 언론 등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넘은 이력이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6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쿠팡과 옐로모바일, 크래프톤, 위메프, 무신사 등도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티몬이 시비 인사이트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다른 IT 매체인 크런치베이스에는 등재돼 있고, 비공개를 희망하는 기업 두 곳은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잇츠한불, 더블유게임즈, 펄어비스 등 다섯 곳은 상장 전 벤처투자 유치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본격적인 성장가도에 진입한 신생 기업)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최근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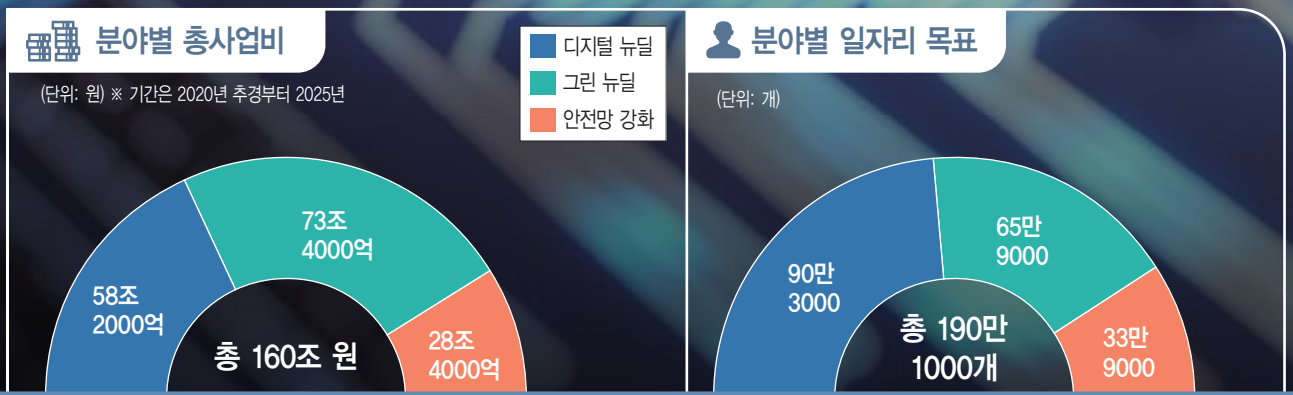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은 새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에만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에 7조 9000억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쏟아붓고 기반이 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만큼 국민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나와 내 주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 크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성공의 관건이다. 국민 모두 서로 포용하고 함께 혁신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내놓은 구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위치와 눈높이에서 한국판 뉴딜을 바라보려 한다. 국민의 생활 속에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채널로 다가간다. 〈공감〉 새해 한국판 뉴딜 특집 기사에선 한국판 뉴딜이 국민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5년 뒤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봤다. 또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국민이 묻고 정책 책임자가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라디오 광고를 선보인 국악 기반 팝 밴드 '이날치'의 음악세계를 통해 융합과 혁신으로 발상을 바꾼 정책의 의미를 풀어봤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좌절을 극복하고 생각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다시 일어선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혁신 정책과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위대한 도약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전환에 도전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전환의 길로 〈공감〉과 함께 가보자.

특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게티이미지뱅크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 투자



한 국 판 뉴 딜 내려온다
내 삶이 '차 르 르 르'

한국판 뉴딜로 꿈꾸는 청춘의 일상과 미래

여기 '한국판 뉴딜호'에 미래를 실은 젊은이가 있다.
디지털 교육을 받고 인턴 체험에 한창인 두 취업준비생을 만났다.
그들의 포부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이 뿌리를 내릴 2025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 '가까운 미래'는 2021년의 나와 너, 우리에게 말을 건다.
한국판 뉴딜과 동행으로 변화될 삶을 그려보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상대가 '김지영'이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실눈이 떠졌다. 한 달에 한두 번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하는 거래처 회의 참가자 8명 가운데 하나던가? 3년 전 상견례 뒤로는 모니터로만 얼굴을 대하다 보니 딱히 살가울 구석이 없는 사이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너무 스스럼없다.

"이게 몇 년 만이지?"

상대가 자연스럽게 말을 낮춘다.

"?…."

"우리 얼굴 보고 하는 졸업식도 못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 맞다, 대학 같은 과 동기 김지영!

2020년 비대면 졸업식

2020년 8월. 기록적으로 길었던 장마가 끝날 무렵 우리는 흩어졌다. 가을 학위 수여식은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음의 거리두기도 요구했다. 대면 졸업식을 했더라도 몇이나 모였을지 모르겠다. 낮은 취업률은 한두 해 계속된 게 아니었지만, 그해에는 '폭망'했다. 가뜩이나 취업률이 낮은 인문학 계열을 전공한 나로서는 어



디지털 뉴딜 안은영(29)
직장: 인문학 분야 앱 운영 회사
#데이터_댐 #공공데이터
#데이터소팅 #플랫폼기업

쩌다 누가 취업했다는 얘기라도 들으면 특별한 개인적 배경, 시쳇말로 '빽'이 뭐였는지부터 궁금했다. 졸업 뒤로는 각별한 몇몇 빼고는 만남도 없었다.

2025년 플랫폼 기업 근무

나는 수도권의 한 플랫폼(비대면 서비스) 기업에서 일한다. 인문학 분야 대중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운영하는 회사다. 입학시험부터 교양, 학술까지 인문 분야의 온갖 데이터를 가공해 앱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직원은 100명 남짓. 내가 입사했던 4년 전(2021년)에는 3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 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사 대표가 창업 뒤에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도 데이터 구하기였다. 데이터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온갖 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걸 찾고 정리하는 건 거대 기업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데이터 댐이 구축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누구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에 아무런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지난해(2024년) 대리로 승진했다. 인문 분야의 최신 흐름을 파악해 데이터 소팅이나 아이템 개발 분야와 협업하는 게 내 일이다. 급여는 대기업 수준은 못 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원룸 오피스텔 월세(그린 뉴딜 주택이어서 전기료가 거의 없다) 내고, 저축도 하고, 건강센터에도 다닌다.

나를 일으켜 세운 그 라디오 광고

나의 28년 생애는 8할이 비관이었고, 우리 '삼포세대'는 2020년 들어 나락으로 떨어졌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무한 경쟁마저 의미가 없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바짝 마른 모래밭에 부은 한 바가지 물처럼 가뭇없이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아우성이었지만, 다른 사람 아픔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내 마음은 사막이 되어갔다.

대통령이 취임 3주년에 맞춰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겠다"며 큼지막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짙은 잿빛의 일상에 지친 내게는 아스라한 거리감만 안겼다.

침대 속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죽이며, 까딱하기도 싫은 손가락을 써서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다. '핫(인기가 높다)'하고 '힙(유행에 밝고 신선하다)'한 노랫가락이 귀에 꽂혔다.

"뉴딜 내려온다 한국판 뉴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판 뉴딜/ 경제 살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판 뉴딜/ 차르르르 차르르르/ 내 삶을 지키고 우리 동네 살리는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미래 열고 세계경제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

국악 기반 팝 밴드 이날치가 '범 내려온다'를 개사해 부른 '뉴딜 내려온다' 광고였다. 몸을 일으켜 한국판 뉴딜을 해설하는 기사와 유튜브 동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코딩도 몰랐던 백수가 인턴을 마치니

오래 망설이다 마음을 다잡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데이터 소팅(Data Sorting): 데이터를 정렬·분류해 필요한 자료만 추출



그린 뉴딜 김지영(29)
직장: 친환경 건물 컨설팅 기업
#환경문제 #생태운동
#친환경_리모델링 #사회적기업

게티이미지뱅크



공공디지털 일자리 교육에 참가한 한 취업준비생 | 한겨레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접속했다.

"비전공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코딩이 뭔지도 모르는데…."

질문은 쭈뼛거렸지만, 답변은 선선했다.

"수많은 비전공자가 이미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진출해 있어요. 디지털 뉴딜의 효과로 기회는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속는 셈 치고 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교육을 쫓아가지 못하면 미련 없이 관둘 생각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시나브로 원리에도 눈이 트여갔다.

실습하고 응용할 기회가 필요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모집 공고를 봤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품질을 진단하는 일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일단 지원했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퀴즈 테스트를 이수했고,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다. 교육과정이 끝나고 기획재정부에 배치됐다. 기재부가 발행한 보도자료, 정책자료, 각종 재정 통계 등을 정리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했다.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도 했다. 경험이 쌓이면서 데이터란 무엇인지, 어떤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아갈 수 있었다.

인턴 활동을 무사히 마치자 수료증과 경력증명서가 발급됐다. 2주짜리 추가 전문교육을 받고, 취업지원 상담도 받았다. 여러 차례 상담과 도전 끝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추천받았다. 졸업 뒤 받은 디지털 교육 결과에 기업은 반색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2021년 4월 말, 지금 직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지난 4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긍정과 낙관의 시간은 속도도 빨랐다.



내 전공과 졸업 뒤 받은 디지털 교육 결과에 기업은 반색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2021년 4월 말, 지금 직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지난 4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긍정과 낙관의 시간은 속도도 빨랐다.

환경 답사 열심이던 지영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김지영이 물었다. 지난 5년은 아무리 압축해도 전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지영은 회색 계열의 투피스 정장 차림에 옅게 얼굴 화장을 하고 나타났다. 나는 가벼운 차림에 스니커즈를 신고 갔다.

"야, 안은영! 넌 어떻게 그대로냐?"

"웬 정장?"

지영은 학교 다닐 때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몇 날 며칠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나타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환경 답사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옷차림은 언제나 야외 활동을 하다 온 복장이었다.

지영은 졸업 뒤에도 동아줄을 붙들듯이 한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 다른 학교 친구와 만났다.

"너 진짜 꿈이 공무원이니?"

"가능한 한 환경 분야 공무원!"

친구가 말을 끊더니 데이터 댐 얘기를 꺼냈다. 지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댐 건설 반대운동을 한 기억이 나서였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안에 곳곳으로 뻗은 친환경 산업의 물길이 보일 듯 말 듯했다. "데이터를 잘만 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혁신적인 기술과 훈련방법을 가진 민간 훈련기관, 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대상_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취업을 위해 디지털 실무역량이 필요한 구직자
훈련_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안, 실감형 콘텐츠, 핀테크, 무인이동체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혜택_ 교육비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차감)
문의_ 구체적인 사항은 HRD-Net 및 각 기관 누리집 참조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코드스테이츠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 현장 | 코드스테이츠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용하면 생태운동과 생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건 김지영 자신이었다.

관심 있는 친구들과 '그린 인재 양성'을 한다는 유수의 민간 데이터 교육기관에서 무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교육기관 쪽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추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댐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맞춤형 친환경 건물 컨설팅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에서 이런 일을 돕는 예산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 허름한 사무실을 얻고 집기를 들여놓고도 한동안 쓸 수 있는 운영자금이 남았다.

김지영은 이날 지자체에서 발표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환경 답사 옷차림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였다.

'그린 리모델링' 전도사로 나타나

지영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래 여성 여남은 명이 함께 만든 작은 회사였다.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새로 짓는 건물 말고도 기존 건물을 구조 변경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데이터 댐의 데이터를 활용해 수십 가지 리모델링 유형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지역 사정에 맞게 더 꼼꼼한 사업 방식을 제안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지속 가능하면 돼. 집은 우리가 상담한 친환경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해결했고."

내가 귀를 쫑긋하고 듣는 모습을 보더니 지영이 정색하며 물었다.

"은영, 너네 회사는 친환경 리모델링 안 하니?"

건물 일부를 임대해 입주해 있다고 하자, 지자체를 움직여 건물주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지영이 다시 눈동자를 굴린다.

"우리 얼굴 보고 하는 졸업식도 못 해봤잖아. 동문회 하자고 하면 몇 명이나 모일까?"

한국판 뉴딜이 이어준 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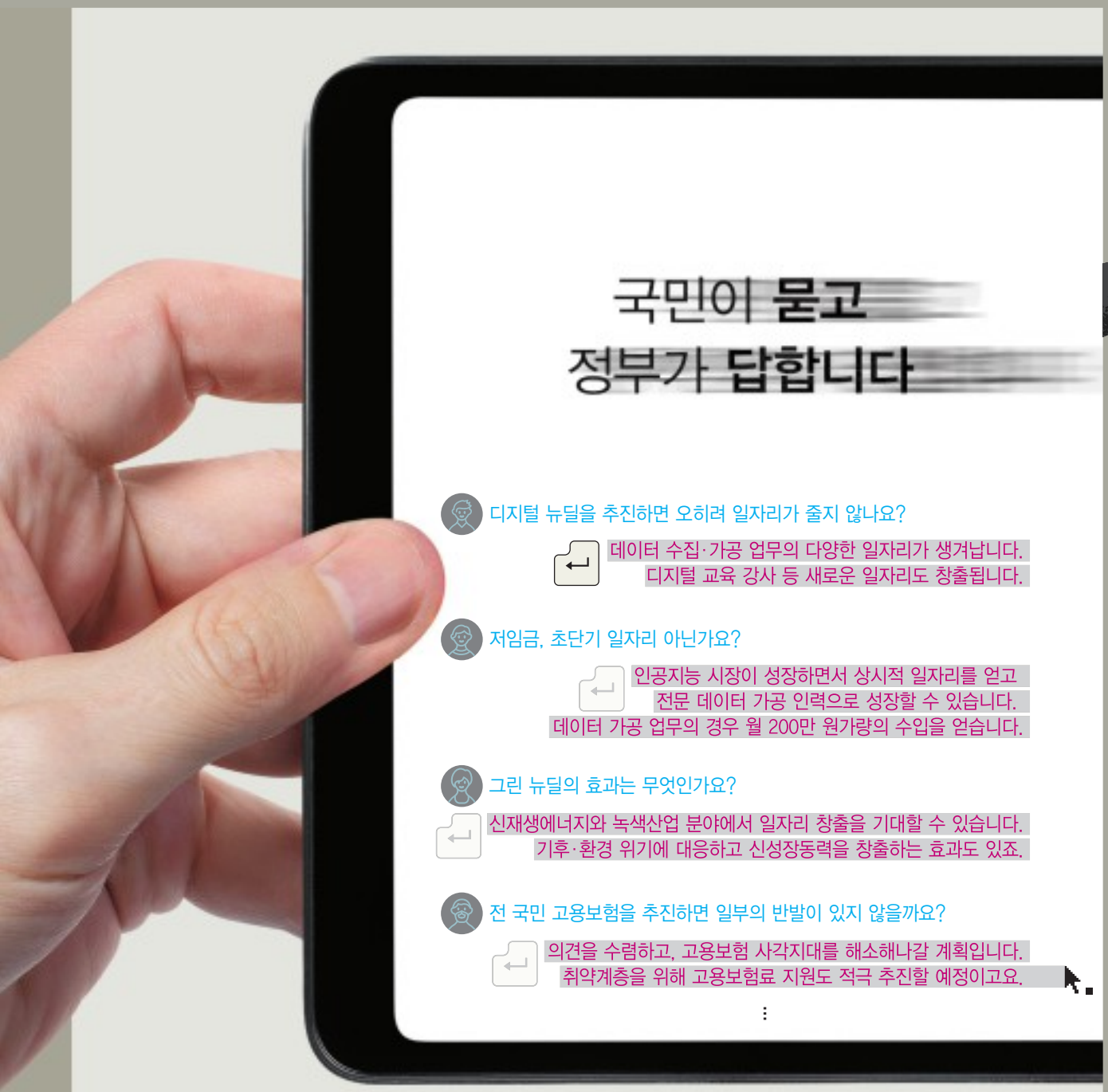
마당발인 친구들을 수소문해 노드(node)로 세우고 사발통문을 돌렸다. 2020년엔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예상 참석 인원이 과반이란다. 그리운 얼굴이 하나둘 나타났다. 같은 아픔과 희열을 겪은 터라 대화는 무르익었다. 자영업 하다가 실패한 뒤 고용보험으로 위기를 넘긴 경우부터 우리처럼 디지털 교육을 받아 직업을 찾은 경우까지, 모두 한국판 뉴딜이 밝힌 불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여기 모였다. 깊어가는 밤은 모닥불처럼 그렇게 타들어갔다. ◎

안영춘 〈한겨레〉 기자

노드(node):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에 접속되는 하나 이상의 기능 단위. 마디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새로 짓는 건물 말고도 기존 건물을 구조 변경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데이터 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십 가지 리모델링 유형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지역 사정에 맞게 더 꼼꼼한 사업 방식을 제안하는 거야.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인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

〈공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자우편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독자 조사를 했고, 이 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 한국판 뉴딜 각 분야 정책 책임자에게 답을 구했다.



Q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A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오프라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다양한 데이터 수집·가공 업무는 별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죠. 기존 오프라인 종사자들이 이런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센터 운영과정에서 디지털 교육 강사 등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겁니다.

Q 데이터 분야 일자리가 저임금, 초단기 일자리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A 데이터 수집·구축 관련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정제·가공 작업 등은 단기 교육 후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와 경험 비법,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이터 가공 업무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상시적인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정규직 전문 데이터 가공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Q 비대면 의료를 육성하겠다는 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인가요?

A 비대면 의료는 감염병 대응,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국민 편의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대비 ▲의료진·환자 보호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민 편의 관련해선 대면 진료의 대체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취약지 거주자 접근성 제고 ▲만성질환자 등 진료 편의 제고가 비대면 의료의 핵심이며, 의료민영화 등 공공의료 체계 쟁점과는 무관합니다.

Q 그린 뉴딜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효과가 궁금합니다.

A 단기적으로는 도시·공간·생활 기반 시설,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분야 재정 투입을 통해 관련 산업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그린 뉴딜에 포함된 기반 시설·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사회'를 지향합니다.

Q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A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2021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및 특고,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 지원만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A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공공부문 채용이 중단 및 연기되고,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 등으로 청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을 내놓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 4678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5만 명, 2352억 원)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노동시장의 힘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

김청연 기자



이날치의 음악 정신
한국판 뉴딜 광고 부른

'1일 1범(하루에 한 번 '범 내려온다'를 듣는다)'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밴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2020년에 가장 성공한 예술가일 것이다. 전통적인 판소리에 현대적인 팝을 접목한 밴드명 '이날치'는 조선 후기 팔명창 중 한 명인 이경숙의 예명에서 따온 것에서 보듯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원래 줄광대를 했는데 날치처럼 줄을 잘 탄다고 해서 이런 예명이 붙었다고 한다.

일곱 명으로 구성된 밴드 이날치는 2018년 말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음악극 〈드라곤 킹(용왕)〉을 작업하면서 처음 만났고, 2019년 5월 〈들썩들썩 수궁가〉 공연으로 데뷔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젊은 춤꾼들이 모인 그룹이다. 비상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무용의 틀을 깨겠다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컴퍼니'라고 정의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범 내려온다〉의 독특한 안무가 가능했다. 이 음악의 성공에 이들의 몸짓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설명하는 시대에서 느끼는 시대로

1990년대 말, 아이돌 그룹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한류'는 2000년에 이르러 드라마 〈가을 동화〉 열풍으로 본격화했다. 초기의 한류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비롯된 우연이었다. 내수 시장의 붕괴로 쌓인 재고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애썼던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시장에 한국 제품과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뜻밖의 인기를 확인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의 대외 전략은 콘텐츠 중심으로 변했다. 2010년대의 2차 한류는 그 결과로 볼 수 있다. 때마침 확산된 새로운 매체를 기반으로 한국방송공사의 위성방송 전략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전략적 접근이 당시 국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K-팝의 질적 상승과 맞물리며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조금씩 전파된 게 2차 한류(신한류)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필두로 다수의 K-팝 콘텐츠가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현상은 누리소통망(SNS)과 뉴미디어의 결합, 콘텐츠의 스타일뿐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메시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영미 문화권의



이날치의 성공에서 한국판 뉴딜의 길을 찾다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밴드 이날치의 '한국판 뉴딜' 라디오 광고(**왼쪽**)와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로 연결됩니다.



이날치 밴드(오른쪽)가 네이버 온스테이지에서 안무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범 내려온다〉 공연을 하고 있다. | 네이버 온스테이지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한국적 감수성이 특징이다. 이날치는 '신한류를 이끄는 조선의 힙'이라는 평가에 대해 "지금 세대가 익숙한 리듬에 그냥 귀 기울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 흥미가 생겨 판소리 가사를 외워보겠다는 분들도 생겨났다"고 전했다. 이날치와 앰비규어스의 조합이 해외의 젊은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범 내려온다〉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은 전 세계 3억 건(2020년 11월 중순 기준)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을 설명하는 시대를 넘어 한국을 느끼게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치와 한국판 뉴딜의 공통점은 '관점의 전환'

이날치와 앰비규어스가 보여준 성과는 국악과 콘텐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동해 오히려 국악을 협소한 틀에 가둘 수도 있다고 봤다. 국악을 우리의 것, 지켜야 할 것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것, 동시대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환한 게 이들의 성공 요인이다. 이날치는 "갓 쓰고 도포 입고 하는 것도 판소리고, 이날치의 노래도 판소리다. 지금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뉴딜 내려온다 한국판 뉴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판 뉴딜/ 경제 살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판 뉴딜/ 차르르르 차르르르~."

'범 내려온다'를 개사해 만든 한국판 뉴딜의 라디오 광고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선도국가로 전환하려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철학이 담겼다. '생각을 뛰어넘는 혁신과 융합'이라는 이날치의 음악 정신과 통한다. 판소리와 팝, 전통과 현대의 '화학적 융합'은 생각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융합으로 구현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도 관점의 전환이다. 특히 비대면 시대의 일상화라는 지구적 쟁점에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환경문제, 콘텐츠 쟁점과 만날 수밖에 없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일은 기존 관점을 전반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본질을 유지하되,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동시대적이어야 한다는 것. 제도와 정책은 바로 그런 생명력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2020년에 문화와 경제에서 한 획을 그은 두 사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순환구조의 한복판에 있다. ◉

차우진 음악평론가

이날치의 판소리와 팝의 '화학적 융합'은 생각의 전환에서 출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융합으로 구현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도 관점의 전환이다.



새해는 코로나19가 물러나길 바라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 2021년은 건강하길 바래요.'

'새해는 대박나길 바래~'

'건강한 연말연시 되길 바랄게.'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등의 안내문자로 울려대던 휴대전화가 모처럼 따듯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늘 바쁘던 연말연시, 2020년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면활동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그래서인지 비대면으로 전하는 새해인사는 더욱 분주하고 온정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말도 보이네요. 여기서 '바래/바래요'는 비표준어입니다. '바래'가 맞다고 착각하는 이유로 사실 노래가사도 한몫하는데요. 최근엔 제목이 '바램'인 임영웅 노래부터 1990년대엔 윤종신의 '부디'(부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더 전에는 노사연의 '만남'(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까지 '바래/바래요/바램'이 '바라/바라요/바람'보다 더 친숙합니다. 하지만 '바라/바라요/바람'으로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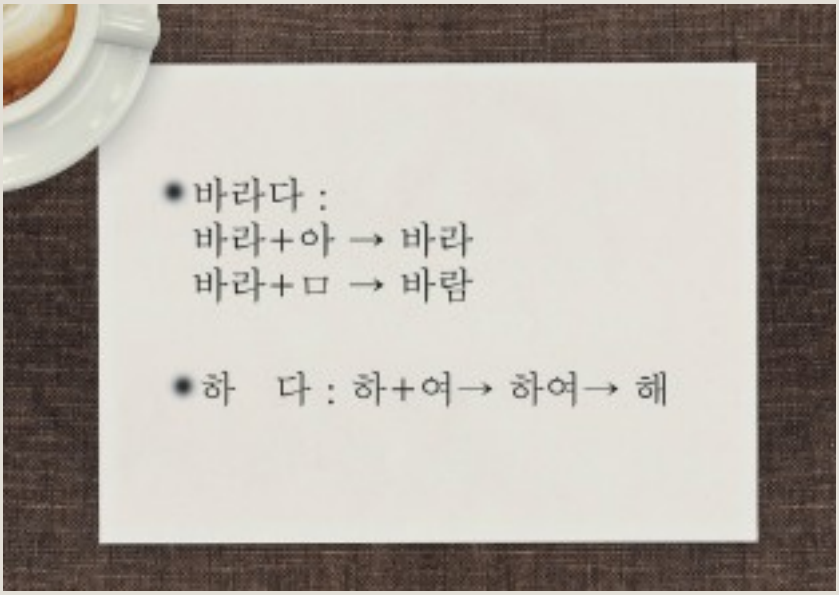
'살다'와 같이 모음 'ㅏ' 로 끝난 어간에 '-아'가 활용되면 '살아'가 됩니다. 모음 'ㅗ'도 마찬가지인데요. '놀다'에 '-아'가 활용되면 '놀아'가 됩니다. 반면 먹다는 '먹+어'로 '먹어', 숨다는 '숨+어'로 '숨어'가 됩니다. 즉 몸통이 되는 말의 마지막 모음이 'ㅏ'나 'ㅗ' 소위 양성모음이면 뒤에 '아'가 붙고, 다른 모음이면 '어'가 붙습니다.

'바라다'의 어간은 '바라'니까 '바라+-아→바라아'가 되는데요. '아' 소리가 '라'에 합쳐져 '바라'가 됩니다. '바램'도 잘못된 말인데요. 우리말에는 '명사형어미'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 때 'ㅁ'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삶', '감', '옴' 등과 같이 명사로 만들어 사용하죠. 따라서 '바라다'의 명사형은 '바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래다/바램'이라는 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바래다'는 '①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② 가는 사람을 일정한 곳까지 배웅하거나 바라보다. ③ 바라다의 잘못'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램'도 '볕을 쬐거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함'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두 단어의 구분이 헷갈린다면 바라다는 '기원·희망'의 의미를 담은 반면 바래다는 '색이나 빛의 변화' 또는 '배웅'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바라+-아'가 '바라'가 아닌 '바래'가 돼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바래'를 인정하려면 '바라-+-아'가 '바래'로 실현되는 것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바래/바래요/바램'이 '바라/바라요/바람'보다 더 친숙합니다.
하지만 '바라/바라요/바람'으로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문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어에서는 '가(다)+—아→가', '자(다)+—아→자', '자라(다)+—아→자라' 등에서 보듯이 모음 'ㅏ'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아'와 결합할 경우에는 어간의 모음 'ㅏ'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 규범으로 정한 것입니다. '바라(다)+—아→바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다'는 왜 '하+아→하'가 아닌 '해'로 활용될까요. '하다'는 유일하게 '여 불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 '여'로 바뀌어 '하여'가 된 다음 '해'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말도 비슷한데요. '파랗다, 커다랗다'는 '파랗아'(파랗+아), '커다랗아'(커다랗+아)가 아닌 '파래, 커다래'로 변합니다. 맞춤법에서 인정하는 'ㅎ 불규칙' 단어들인데요. 'ㅎ'이 줄고 '—아' 대신 '—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규칙 용언을 다룬 한글 맞춤법 제18항은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고 돼 있습니다. 대중들의 언어생활을 반영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불규칙 사례가 '바래'도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중들이 많이 쓰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어가 될 수는 없겠죠. 표준어는 어원이나 의미, 문법 현상, 언중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한 나라의 규범으로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했던 2020년. 새해엔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따듯한 문자메시지 한 통 더 보내면 어떨까요? ◉

백미현 기자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1. 탄소중립이란 우엇일까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생활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코로나19가 기후 위기와 관련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알것 같다가도 잘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다 동네 카페 창에 붙은 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탄소중립에 관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해보는 모임.



평소 저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요즘 더이상 이렇게 지내선 안되겠단 생각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솔'씨를 만났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솔씨와 함께 탄소중립 생활에 관해 공부하고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

한국은 가장 성공한 녹색혁명 국가다. 이제는 산이 아니라 도시, 수목원, 도시공원 등에서 녹색혁명을 성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탈탄소 사회에 대해 진정으로 목이 마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영(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흔히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한국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두 배 정도 증가한 7억여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30년 뒤에는 '0톤'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로 과감한 정책 선언일 수밖에 없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폭염, 한파, 산불, 가뭄 등 이상기후와 재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온실가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량 증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영국의 종양학 전문지 〈랜싯 종양학(Lancet Oncology)〉에 실었는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19년 유럽 26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중국도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2021~2024년) 동안 20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며,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선언했다. 갈수록 많은 국가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와 국내외 기업 발 빠르게 대응

국내외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는 2015년에 세계 기업 중 최초로 203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19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탄소처리 기술개발에 약 1조 2300억 원 규모의 '기후혁신기금'을 조성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네슬레, 구글, 아마존,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등의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약 8600조 원의 투자 자금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사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하는 탄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LG전자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년 대비 50%로 줄이고, 외부 탄소 감축 활동을 강화해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이나 포스코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도 이에 동참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미래는 정부든 기업이든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거나 제로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신(新)탄소 제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을 보면 3+1 실행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수익 창출, 재정·녹색금융·연구개발(R&D)·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가장 성공한 녹색혁명 국가

첫 번째 경제구조 저탄소화는 우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가칭 '신경제구조 전환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력 정보기술(IT), 배터리, 바이오산업과 함께 인공지능(AI), 대량자료(빅데이터), 로봇, 증강현실(VR) 등 4차 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하고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원의 많은 확대를 위해서는 계통 안정성, 출력 제한과 같은 추가 비용이 따른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안했듯이 모든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 부분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순환경제 사회로 갈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녹색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지역,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 정보 등 사회가 갈수록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네 번째는 모든 정책을 수행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국이나 호주, 일본, 미국은 전문적인 녹색 은행이나 금융공사를 통해 에너지 환경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래야 신생기업(스타트업)도 생기고 새로운 산업도 생길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좋은 탄소 흡수 수단인 나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가장 성공한 녹색혁명 국가다. 이제는 산이 아니라 도시, 수목원, 도시공원 등에서 녹색혁명을 성공해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 내 녹지가 없어지고 있어 숲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다. 대한민국은 탈탄소 사회에 대해 진정으로 목이 마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

자료: 정책브리핑



●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고위공직자 범죄 예방하고 국민 인권 더 두텁게 보장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의미와 향후 전망

2020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으며, 여야가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 요청 후 1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학계 인사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6년에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입법청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약 23년간 수많은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공수처 도입에 대한 오랜 논의들이 있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7월 15일에 발효까지 되었는데도 야당이 뒤늦게 위헌론을 끄집어내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다가 10월 말에 와서야 추천이 이루어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까스로 구성되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약 10개월 만이고 공수처법이 발효한 지 100일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

그 후에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례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중립성이 의심되는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그 결과 개정된 공수처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공수처장의 자질이나 공수처 역할에 관한 공론의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공수처장이 갖춰야 할 덕목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20년 12월 28일 열린 제6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중 김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2021년 2월 초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국민의 여망대로 검찰을 잘 견제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 성역 없이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대통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은 여러 차례 검찰 스스로에 의한 '셀프 개혁'을 거쳤는데도 전혀 축소되거나 분산되지 않는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검찰 밖의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검찰 외부에서 검찰개혁을 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령이나 정부 여당, 야당, 검찰 등 각종 외부 권력으로부터 외압을 막아주면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

최근에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들 상대 고액 술접대 사건에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든가, 술자리 향응액을 계산할 때 향응 제공자였던 김 전 회장을 수수자에 포함해 접대액을 머릿수대로 나누는 등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계산법을 사용해가며 3명 중 2명의 검사를 불기소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통한 검찰권 오남용은 여전하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은 여러 차례 검찰 스스로에 의한 '셀프 개혁'을 거쳤는데도 전혀 축소되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수처라는 검찰 밖의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검찰 외부에서 검찰개혁을 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오남용 감시

공수처는 감시기구가 없고 견제가 없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들린다. 기우다. 전국 2300명의 검찰청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 25명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걱정하는 것처럼 검찰을 능가하는 권력기관이 될 수 없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어떤 사안들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질까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 공수처 초창기에는 첩보 등을 통한 인지수사도 별로 없고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의 존재가 고위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발휘된다는 말이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어 가지는 검찰을 공수처가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오남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 형사 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과거보다 더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

공수처법은 법안 성안과 통과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70~80%의 다수 국민이 일관되게 지지해준 법률이다. 이제 정치권은 신속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을 통해 이런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한다.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의 정책뉴스

모든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 도입

2021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지만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다리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038억 7000만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중 5021억 5000만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하며, 4017억 2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 지역에 많이 교부하는데,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2021년에는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시설(작은 하천과 다리) 정비를 지원한다. 이는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서울 2, 부산 1, 인천 2, 대전 1, 세종 1, 경기 2, 강원 1, 충남 1, 제주 1 등 9개 시·도에 12대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미보유 7개 시·도 중 광주·울산·경남은 2021년, 충북·경북 2022년, 전북·전남은 2023년도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9

K-유니콘 프로젝트, 투자 유치·매출 상승

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 '아기유니콘'을 육성하고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예비유니콘'을 보증하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6709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50% 이상 증가하면서 일자리는 1900여 개를 창출했다.

2020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K-유니콘 성과 우수사례'에 따르면 사업 1단계 아기유니콘200 지원기업 40개 중 14개 기업이 6개월 만에 1021억 원을,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42개 중 21개 기업이 5688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당초 투자유치액(1조 1773억 원)의 50%가 넘는 규모를 추가 투자받은 셈이다.

참여기업의 매출도 증가했다. 20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받았던 기업 27개사의 평균 매출은 2018년 328억 원에서 2019년 502억 원으로 53% 증가했다.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이 5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7% 늘었다.

2020년 아기유니콘200을 지원받은 기업도 3분기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172% 늘었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매출액도 156억 원에서 271억 원으로 73.7% 늘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94



2020년 6월 서울 마포구 무신사에서 열린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한겨레

대형트럭·버스도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020년 12월 29일 공포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14년과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형 상용차는 약 85만 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를 차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이번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예술지원사업 '아트누리'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아트누리'(artnuri.or.kr, 아트누리.kr)를 개설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이 누리집에서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한다.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사업운영 기관별로 제공해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필요할 때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예술인들은 '아트누리'에서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검색, 지역·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알림 등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활동 지역, 관심 예술 분야 등의 개인정보를 '아트누리'에 미리 입력하면 이에 맞는 지원사업 공고가 게시됐을 때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트누리'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아트누리'를 통해 관심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집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아트누리 누리집 메인화면

어서 와~ 탈춤 '한여름 밤의 꿈'은 처음이지?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인이 한국 문화예술을 집에서 즐긴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12월 14일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사업의 최종 결과물을
공식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순차 공개했다.
해문홍은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 기회를, 외국인에게는 공연 관람 기회를 주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6월 공모를 통해 총 421건의 콘텐츠를 접수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연극, 전통 공연, 융·복합 공연, 전시 등 총 17개 콘텐츠를 선정해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
박정렬 해문홍 원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 문화예술 단체에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가 있는 단체에 영상 전문가를 지원해 콘텐츠가 돋보이도록 영상을 만들고 해외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외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이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hannel/UCnKI1KNuGy1fnXrFE8Qvo7g)과 재외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 누리집, 코리아넷 등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공연 세계시장을 선도할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한다.



체험형 공연

● **웨이트리스와 로버**

연극 〈웨이트리스와 로버〉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에서 영감을 받았다. 계급과 체제 및 비극적인 부자의 모습을 그린다. 극공작소 '마방진'과 미국 극단 '콘크리트 템플 시어터(CTT: Concrete Temple Theatre)'가 공동 작업해 서울과 뉴욕에서 각각 맡은 부분을 촬영한 후, 편집 기술(컴퓨터 그래픽, 교차편집 등)을 활용해 한 공간에서 함께 공연한 것처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다. 두 극단은 당초 2020년 뉴욕 라 마마(LA MAMA) 극장에서 합동으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했다가 이번 사업을 통해 합동 공연을 이뤘다. 마방진 관계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번 작품을 통해 예측 불가인 상황에서도 공연예술의 국제 교류 및 연극 분야에서 공동창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마방진(yellowbomb.mail@gmail.com)



● 기접몽-전주기접 백중축제

합굿마을문화 생산자협동조합의 〈기접몽-전주기접 백중축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를 중심으로 봄에서 초가을까지 옛 농촌 마을의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했다. 지역 구전 노동요와 민속 행위, 전통 연희 등이 담겨 의미를 더한다.

문의 합굿마을문화 생산자협동조합(giplay@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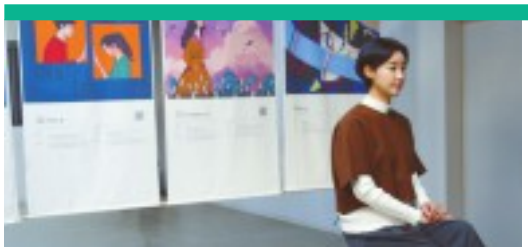


● 한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 고전 〈한여름 밤의 꿈〉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인 '봉산탈춤'과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토대로 비교 연구해 반가면극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우리 전통 연희와 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한여름 밤의 꿈〉을 창조했다.

문의 사다리움직임연구소(kosear0802@hanmail.net)

설명이 있는 전시



● 디자이너 100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순간들

한국의 젊은 미술가와 음악가들이 공동 작업한 전시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100인이 각자 바라본 한국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시각적 콘텐츠(2D, 3D, 영상)로 표현했다.

문의 율 누리집(nopigraphic@naver.com)



● 2020 무브 온 아시아 가정 극장에서 즐기는 한국의 무빙 이미지

아시아 큐레이터 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국 사회의 동시대적 고민과 문제의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한다.

문의 이정아(laviehouse@naver.com)



● 세계문화유산교류프로젝트 아카이브

우리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영상, 설치, 회화 등의 전시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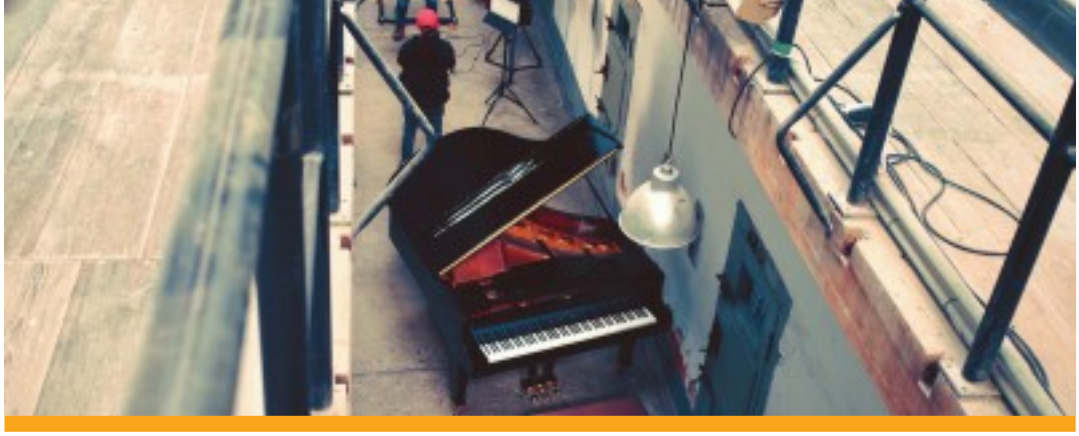
문의 세계문화유산교류프로젝트 아카이브(whep1999@naver.com)



● Cooking Korean Art

한국의 음식과 현대미술을 접목해 새로운 예술 영상 콘텐츠로 편성했다.

문의 아트북프레스(artbookpress@gmail.com)



● 笙 – 바람을 입다

생황은 한국의 관악기 중 유일한 화음 악기다. 생황 연주자 김효영 씨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생황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첼로, 비올라 등과 함께 연주하는 독특한 영상을 만들었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대면 공연과 해외 연주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악기와 음악을 좋은 영상에 담아 해외에 홍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김효영(pirist@hanmail.net)

짧은 콘텐츠



● 놀고 놀려 하노라

'음악동인 고물'은 가곡과 풍류를 비롯한 경기, 서도 소리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며 공연형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의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팀이다. 〈놀고 놀려 하노라〉에서는 전통 가곡을 각색해 '태평가'를 비롯한 악가무에 영상을 더한 복합 공연을 선보인다.

문의 음악동인 고물(gomoolmail@naver.com)



● 인생 꽃 같네

'악단광칠'은 전통 연희와 결합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중성을 인정받은 악단이다. 2015년 정가악회에서 음악 유닛(새로운 기획을 통한 별개의 활동)으로 결성했으며, 그해가 광복 70주년이어서 광칠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밤중에' '북청' '모십니다' 등 세 곡을 제작했다.

문의 악단광칠(jw@boboo.kr)



● 시집가는 날(혼례)

〈오즈의 마법사〉를 인용해 한국 전통혼례를 현대적 문화예술로 승화한 작품이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이야기, 음악, 복색, 퍼포먼스 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팝핀현준 아트컴퍼니(soundofsoul85@daum.net)



자연으로 만나는 한국음악

자연 친화적이며 생명 중심적인 세계관을 담은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다. 창덕궁, 서울숲, 한양도성 등을 배경으로 펼쳐져 볼거리도 풍성하다.

문의 김혜림(hyelimtaegum@gmail.com)



● 광대 탈놀이 〈딴소리 판〉

광대 거지들이 풍요 속 빈곤과 공허함에 허덕이는 우리네 삶을 해학적이고 유쾌한 탈놀음으로 시원하게 위로한다. 판소리 다섯 마당을 비틀어 제멋대로 놀다 보면 보는 이도 어느새 한껏 어우러진다.

문의 The 광대(thegwangdae@daum.net)



● Jardin du Son(소리의 정원) '사계 四季'

하윤주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다. 선조들의 시조시를 기반으로 한 전통 가곡과 함께 현대적인 감성을 얹은 '정가' 창법을 이용해 창작한 네 개의 곡을 선보인다.

문의 하윤주(gogeummusic@naver.com)



●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 K-뷰티 ; 미용비법(美容祕法)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흰색에 대한 호상(好尙), 미를 존숭(尊崇)하는 생활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희고 윤택한 피부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했고, 그래서 백색 피부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 이러한 미의식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목욕을 즐겼다거나 천연재료 등을 이용한 화장품에서 엿볼 수 있다. 온택트 K-뷰티에서는 전통화장 연구가 방기정 교수(대전대 뷰티건강관리학과)가 전통 화장술을 직접 시연하며 소개한다.

문의 방기정(wp2848@nate.com)



● 혜경궁 홍씨의 꿈

한 여인의 일생을 예술적 접근으로 재창조해 해석한 작품이다. 수요남극, 아리랑 루트를 가야금 4중주로 편곡 연주한다.

문의 정길선(queenenc@hanmail.net)



● 재수굿

전통 '서울굿'에 특수 타악기와 건반을 더했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들을 위로하는 굿이다. ◉

문의 최예림(sherlockholmes7@naver.com)

Q 공시가격 정상화가 '세금폭탄'이라고요? 실효 보유세율 OECD 평균의 반도 안돼

잘못 알려진 부동산 정책 네 가지 바로보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보유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새 임대차법 등 부동산 과열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들마저 오해되고 있는 점이다. 건설적인 비판을 넘어 왜곡 보도된 정책 네 가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본다.

새 임대차법이 세입자 힘들게 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이다.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뒤 전세 품귀와 전세가격 폭등으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논리다. 정말 그럴까.

최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신규 계약은 8억 원, 갱신 계약은 4억 원대로 2배 차이가 난다며 '이중가격'의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다. 은마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들어 8억 원 이상에 거래된 것은 17건 가운데 1건이었다. 나머지 16건은 4억 2000만~5억 4600만 원으로 2018~2019년 거래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계약자보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현재 신규 매물의 호가가 최고 9억 원에 이르는 등 신규 계약자가 처한 전세난에 대한 해법은 필요하지만, 임대차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존 세입자들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2020년 상반기 서울 각 구별로 전세 거래가 많은 대표 아파트 25곳 중 15곳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의 5배 이상이었고, 새 임대차법이 없었다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가격 폭등에 노출됐을 것이다. 전세난은 다주택자에 의존해온 한국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 탓이지, 임대차법에 의해 초래된 게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일부에서 '증세' '세금폭탄'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이 되는데, 시세 반영 비율이 70%에도 못 미쳐 자산 가치에 따른 공평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9년 기준 3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68.6%인 데 반해 9억~15억 원대 주택 현실화율은 66%대로 오히려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은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정상화'이지 '증세'가 아니다.

'부동산공시법'은 공시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규정한다. 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110%에 있을 때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한 과세가 이뤄진다고 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덴버는 현실화율이 101.3%,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0%, 오스트레일리아는 90~100%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7%(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9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허수아비' 공시가격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

한국의 부동산 시세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내는 통계로 가늠되는데, 최근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국민은행의 시세보다 낮다며 '통계 조작'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국민은행 가격 통계는 표본 아파트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판단한 시세를 입력한다는 점에서 '호가'가 반영되는 조사로 간주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에 기반해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문조사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주택가격 통계는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한국도시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0년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만 8782건의 중위가격은 6억 7000만 원이었다. 국민은행이 밝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1216만(1월)~9억 2152만 원(8월)에 견줘 2억 4000만~2억 5000만 원 낮은 수치다. 국민은행이 9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1월의 경우,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6472호의 중위가격은 5억 8900만 원에 그쳤다.

임대차 보호법 핵심 내용과 쟁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내용	계약기간 만료 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차료 체납, 주택 훼손 등 세입자의 중대 과실 없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거절할 수 없음	재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	매매 실거래가처럼 국토교통부 관리 시스템에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쟁점 및 평가	❶ 법 시행 이전 이뤄진 기존 계약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음 ❷ 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이뤄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 논란 있음	❶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할 때 적용하지 않으면 전월세 가격 급등할 수 있지 않나 가능성 있으나, 신규 계약에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❷ 물가상승률(0%대) 비해 5%는 너무 높아 조례 제정 시 보완해야	2021년 6월 시행인데, 즉시 시행되는 임대차 2법과 시차 발생할 경우 문제 없나 문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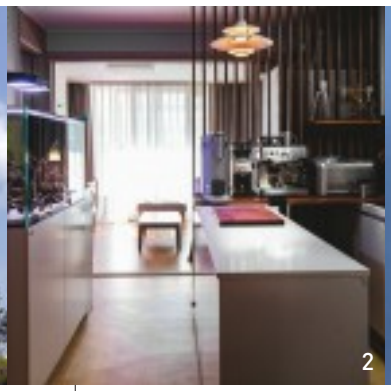
A 부동산거래분석원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일각에서 '해외 유사 사례가 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별종'인 탓에 이 같은 특수 기구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한국은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 부동산 자산 비중이 30.5%로 미국(3.2%), 영국(2.8%)의 10배에 달하고 일본(11.4%), 중국(7.7%)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거주주택 자산 비중은 한국이 39.3%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58.8%), 중국(73.9%)보다 오히려 낮았다. 한국에는 수억 원대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투기 자금으로 활용되는 전세제도, 주택이 지어지기도 전에 분양권을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전매제도 등 주택에서 자본이득을 발생시키는 제도들이 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일까, 주거권은 없고 재산권만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잘못된 것일까? ◉

진명선 〈한겨레〉 기자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공공주택의 진화'**


1 2 3

1 서울 공릉동 행복주택 **2** LH 공공주택 거주자 생활인테리어 사진공모전 대상 **3** 공유형 공공임대주택 서울 '안암생활' **4** 1990년 입주가 이뤄진 서울 번동 영구임대단지(왼쪽)와 2012년 입주가 진행된 강남보금자리 영구임대단지(오른쪽) 모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네덜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라 부른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주택 10채 중 3~4채가 사회주택이다. 1900년대 초 산업화를 거치며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주택이 부족해져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사회주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주택은 점차 보편적인 주거 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 그 핵심 비결은 바로 사회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나간 것이다.

사회주택은 일반 주택과 차별되지 않는 품질과 디자인으로 겉으로 봐서 구별하는 게 어렵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수도 암스테르담은 주요 거리 곳곳에 사회주택이 자리한다. 일반 주택에 비해 오히려 일부 사회주택은 예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이 주목받으며 지역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보편적 주거로서 좋은 품질의 주택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사회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없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도 한 번쯤 거쳐가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공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9년 서울 번동에 4000세대의 대규모 영구임대단지가 조성되면서다. 30년 동안 160만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꾸준하게 새로 지어 2025년에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OECD 평균 8%가 넘는 숫자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원하는 사람이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0년간 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화해 왔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차등화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바꿔나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화해 왔다. 대규모 물량 중심 개발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 입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 단지의 슬럼화(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바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비용에 한계가 있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맞추다 보니 사는 공간은 협소하고, 복도식으로 된 건물 형태는 누구나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지임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차등화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바꿔나가고 있다. 가족 수에 맞는 규모의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평형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 취약가구뿐 아니라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와 호감이 크므로 이에 맞춰 다양하게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더 소중해진 집의 가치

서울 노원구에 자리 잡은 공릉동 행복주택은 과거 철도 역사가 위치했던 부지였다. 정부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공릉동 철도 부지도 변신하게 됐다. 조망권, 행복주택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공릉동 행복주택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건립돼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돼 내놓은 호텔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조 변경한 사례도 있다.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공유주방, 세탁실, 회의실, 작업실과 같은 공유시설을 설치했다. 사회적 기업이 운영을 맡아 공유시설을 관리하고 입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을 지원한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7만~35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45% 수준이다.

막연하게 최소한의 주거로만 생각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에 따라 공간은 다양하게 변신한다. 1인 가구, 신혼부부, 5인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마다의 삶을 담은 'LH 공공주택 거주자 생활인테리어 사진전'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소중해진 집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

자료: 정책브리핑



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한 달 살기’ 좋은 숙소 만들어 국내 여행 활성화 꾀한다

❸ 관광 분야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정부가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해 숙소 자체를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폐교나 폐업한 여관 등 유휴시설을 재활용한 뒤, 지역 고유의 이야기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중저가 숙박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2021년도 예산 20억 원을 새롭게 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 지역 선정 및 설계를 거쳐 2022년, 2023년에 시행, 개관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한 곳당 총 사업비는 40억 원 이내로 잡고 있다. 설계비 3억 원, 시설 개조 36억 원, 홍보·마케팅 1억 원 등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맞춰 예산을 책정하고 민간투자까지 더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여관, 폐교, 노후 관광시설, 빈집 등 지역의 유휴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 유휴시설을 활용하더라도 법적 요건은 충족하게 된다.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다.

문체부가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호캉스’ ‘한 달 살기’ ‘나 홀로 여행’ 등 여행 흐름(트렌드)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공공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한 달 살기 등 지역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숙박시설을 마련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1



문체부가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호캉스' '한 달 살기' '나 홀로 여행' 등 여행 흐름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018년 조사한 지역별 관광숙박업 객실 수 비중을 보면 서울(29%)·제주(16%)·강원(14%)에 몰려 있고, 경기(8%)·부산(7%)·인천(5%)을 뺀 나머지 지역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2017년 익스피디아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숙박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8%나 될 정도로 중저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투숙객과 주민이 함께 교류하는 지역공헌형

문체부는 숙박시설 자체만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형, 문화예술형, 융합형 등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사회 공헌형 숙박시설의 대표적 사례가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트렁크 호텔'이다. 지역 주민이 모여 교류하는 '소셜라이징(Socializing) 호텔'을 일본 최초로 표방하며 2017년 문을 열었다. 투숙객은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그들이 만들어나가는 지역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2



3

1·2 소설 〈태백산맥〉에 '남도여관'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보성여관은 '태백산맥 문학거리'의 중심이자 문학·역사적으로 주요한 거점이다. | 보성여관 누리집
3 트렁크 호텔은 지역에 사는 누구나 들러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교류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했다. | 트렁크 호텔 누리집

투숙객을 위한 프런트 데스크(현관 접수)를 입구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두는 일반 호텔과 달리 트렁크 호텔은 들어가자마자 바(bar)가 보이고, 편안한 좌석에서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지역에 사는 누구나 들러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교류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다. 실제로 밤에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모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시부야 거리에는 낡은 자전거들이 방치돼 지역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트렁크 호텔은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깨끗하게 수리하거나 부품을 이용해 새롭게 만든 자전거를 투숙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객실 등에 있는 소품도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이나 폐자재를 재활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실내용 슬리퍼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도록 재활용 비치샌들을 구비해 숙박객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 카페, 소극장 등 다목적 문화예술형

문화예술형 숙박시설로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은 '보성여관'을 꼽을 수 있다. 소설 〈태백산맥〉에 '남도여관'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곳이다. 벌교는 벌교우체국, 벌교읍사무소, 금융조합 등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어 문학인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다. 특히 일제



4


5

4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목시 호텔에는 프런트 데스크가 없다.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객실로 들어가거나 바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체크인할 수 있다. 5 목시 호텔의 객실은 불필요한 가구를 없애고 접이식 탁자를 벽에 걸어놓는 식으로 공간을 넓게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 목시 호텔 인사동점 누리집

2021년 관광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가 심한 여행업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예산(5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강점기 벌교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 있는 보성여관은 홍교다리, 소화의 집, 죽도방죽을 잇는 '태백산맥 문학거리'의 중심이자 문학·역사적으로 주요한 거점이다.

1935년 문을 연 보성여관은 2004년 등록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고 2012년 복원작업 끝에 재개관했다. 판자벽에 함석지붕을 올린 일본식 목조건물로 전시장이자 카페, 문화체험 공간이면서 숙박업소인 다목적 문화체험 숙박시설이다.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흑백텔레비전, 재봉틀 등 다양한 소품이 있는 아담한 카페가 나온다.

한쪽 공간에는 벌교와 보성여관의 세월을 정리한 작은 전시장이 있다. 다다미방으로 꾸며진 2층에선 판소리 공연, 실내악,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보성여관은 방문객들이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과 친숙할 수 있도록 녹차·떡차 만들기, 설장구 공연 등 문화 체험과 공연으로 이뤄진 '생생문화재 사업-문화의 가치를 더하는 보성여관'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가구 디자인과 글로벌 호텔 경영의 융합형

융합형 숙박시설로는 30개가 넘는 호텔 브랜드로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3400개의 호텔 체인점을 운영하는 메리어트가 세계 최대 가구 회사인 이케아(IKEA)와 손잡고 만든 '목시(Moxy) 호텔'이 대표적이다.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목시 호텔에는 프런트 데스크가 없다.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객실로 들어가거나 바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체크인할 수 있다. 호텔 로비와 라운지 등 공용 공간에는 형광색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렬한 색상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객실은 이케아의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에 맞게 불필요한 가구를 없애고 접이식 탁자를 벽에 걸어놓는 식으로 공간을 넓게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호텔 전체 관리는 메리어트가 책임지고, 이케아는 호텔 시공에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 기술을 도입했다. 구조를 단순화해 모듈 형태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케아 가구처럼 객실 하나하나를 반조립 형태로 만든 뒤 현장으로 옮겨 시공하는 '모듈 방식'으로 공사비를 절감했다.

201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처음 문을 연 목시 호텔은 현재 서울 인사동 등 전 세계 주요 도시 93곳으로 늘어났다. 이케아의 실용적 설계·디자인 방식이 오랜 기간 호텔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메리어트와 만나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를 추구하는 젊은 여행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

원낙연 기자

디지털 혁신 예산 크게 늘리고 관광거점도시 기반 구축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관광 분야 예산으로 2020년보다 1507억 원 늘어난 1조 495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역관광 기반 구축 사업 본격화 등이 특징이다.

2021년 관광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던 여행업계, 호텔업계 등의 어려운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투·융자를 확대하고,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심한 여행업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예산(5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업계 지원 관련 주요 예산은 2020년 6265억 원에서 2021년 7603억 원으로 1338억 원(21.4%) 늘어났다. 특히 ▲관광기금 융자(5450억 원→5940억 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확대(300억 원→450억 원)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515억 원→745억 원) ▲여행업계 생태계 전환(신규 50억 원) ▲숙박 할인권 제공(신규 418억 원) 등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관광 흐름(트렌드)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전통적인 관광에서 진일보한 '관광과 기술의 융·복합' '디지털 관광 뉴딜'의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안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예산을 179억 원에서 389억 원으로 210억 원(117.2%) 증액했다.



보성여관 정원 | 보성여관 누리집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진단 상담 지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고(신규 36억 원), 관광 분야 거대자료 구축·활용 및 스마트 관광도시 등 스마트 관광 활성화 예산을 두 배가량 증액했다. 관광 분야 연구개발(22억 원→39억 원),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신규 12억 원) 예산 등도 디지털 혁신을 위해 편성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방한 관광객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2021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관련 예산을 늘렸다. 관광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취약한 중부, 서부 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 원→383억 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58억 원→88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199억 원→411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119억 원→241억 원) 등 관광개발 사업 예산을 크게 확충했다. 쇼핑, 교통, 안내 등 지역관광 서비스 혁신을 위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는 예산도 28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확대했다. ◉

원낙연 기자


1


2


3

민중미술 넘어 민족의 한을 새겨낸 '도깨비'

죽음이 삶의 완성이라면, 요절(夭折)은 천재 예술가의 충분조건인가? 아니면 천재 예술가가 되기 위해선 필요조건으로 요절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미 요절의 때(?)를 지나 아직까지 살아 있는 나로선 여전히 잘 모르겠다. 어쨌든, 동서고금 가릴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요절 예술가가 있다. 화가, 문인, 철학자, 작곡가는 물론 대중음악 가수나 영화배우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짧은 생을 마감한 그들이 남긴 작품과 인생의 궤적은 후대에 신화로 남아 있다.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였던 김현(1942~1990). 그 역시 쉰을 넘기지 못했다. 생전에 김현은 요절한 시인 기형도(1960~1989)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해설에 이렇게 썼다. "죽은 사람의 육체는 부재하는 현존이며, 현존하는 부재이다. 그러나 그의 육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버릴 때, 죽은 사람은 다시 죽는다. 그의 사진을 보거나, 그의 초상을 보고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때, 무서워라, 그때에 그는 정말로 없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누군가 그를 기억함으로써 그가 '완전한 사라짐 속에 잠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진혼곡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미술 판에도 요절한 인물이 적지 않다. 다행스러운 일은 김현 말대로 아직까지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



4

1 오윤, '낮도깨비', 광목, 목판, 채색, 54.5×36cm, 1984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2 오윤, '검은 새', 종이, 목판, 채색, 17×15cm, 1980
3 오윤, '소리꾼 II', 광목, 목판, 채색, 27.3×24.9cm, 1985 | 공간화랑 소장
4 오윤, '봄의 소리 I', 종이, 목판, 16.5×16.5cm, 1981

역시 적지 않다는 것. 미술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기억되는 대표적 요절 작가가 오윤(1946~1986)이다. 정작 살아 있을 땐 변변한 전시회도 없었고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 특히 판화의 가치가 조금씩 널리 알려지면서 가장 한국적인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민중미술 작가'라는 꼬리표를 떼게 된 것이다. 2006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선 작고 20주기를 기념해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다.

민중미술 태동에 의미 있는 역할

오윤은 해방 이듬해에 태어났다. 소설 〈갯마을〉로 유명한 문인 오영수가 그의 아버지다. 서울사대 부속 중고교 시절, 누나의 지인으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지하, 염무웅 등과 교분을 맺었다. 이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방학 때 전국을 무전여행하며 농부가 되고자 농과대학에 뜻을 두었다. 하지만 재능을 알아본 부친의 권유로 서울대 미대 조소과에 입학했다.

대학생 오윤은 당시 미술계 풍토나 학교 수업엔 흥미를 갖지 못했다. 대신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멕시코 벽화운동을 연구했고,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나 조선시대 민화, 오륜행실도 같은 전통미술을 탐구했다. 판소리, 농악, 산대놀이 등의 연희 현장도 열심히 쫓아다녔다.

이때 1년 동안 휴학하고 또다시 전국 산야와 사찰을 여행했다. 지리산 쌍계사에선 한 달 동안 머물며 추사(秋史) 글씨 현판을 탁본해서 판각하기도 했다. 1969년 2학기에 복학한 후, 그룹전 〈현실동인〉을 준비했으나 학교 측과 당국의 제지로 자진 철회 무산되었다. 같은 해 시인 김지하가 집필하고 오윤, 임세택, 오경환, 강명희 네 사람의 독회와 평론가 김윤수의 교열을 거쳐 '현실동인 제1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민족예술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자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최초의 저항운동이자 선언이었다.

1960~1970년대를 거치며 한국사회 전반엔 '산업화 = 선진화 = 미국화'라는 공식만이 존재했다. 미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구 현대미술 사조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당시 주도적인 한국 미술계 상황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형국이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오윤이 보여준 행보는 이른바 '민중미술' 태동에 의미 있는 역할이었다.

민족의 정체성 담긴 비판적 리얼리즘 미술

민중미술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상징적인 전시가 1980년 〈현실과 발언〉이다. 이 전시에 오윤이 참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앞서, 조소를 전공한 오윤은 1974년 기념비적 테라코타 작품을 남겼다. 서울 종로4가 사거리 광장시장 쪽에 있는 우리은행(구 상업은행)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부조가 그것이다. 안내 현판엔 이렇게 적혀 있다. "민중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판화가 오윤이 친구들(윤광주·오경환)과 만든 작품. 멕시코 벽화운동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력에 주목한 오윤은 흙의 생명력을 도심 속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오윤의 대표작은 목판화다. 판화는 회화와 달리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다. 흑백 대비의 강렬함과 더불어 날카롭고 예리한 조각칼로 판을 파내면서 드러나는 '칼 맛'은 판화 예술이 지닌 특별한 묘미다. 1980년대 오윤의 판화는 여러 시집과 어린이책에 표지로 널리 사용됐다. 간결하면서 힘차고 서정적인 도상은 척박한 현실의 삶과 '한'으로 대변된다. 또한 '도깨비'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을 여럿 남겼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지닌 도깨비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민간신앙의 초자연적 존재다. 오윤은 신명과 한, 그리고 해학과 정겨움 같은 평범한 대중의 일상을 담아내는 데 걸맞은 이미지로 도깨비에 주목한 것이다.

오윤이 남긴 목판화는 독일 작가 케테 콜비츠(1867~1945)나 중국 판화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소설가 루쉰(1881~1936) 못지않게 이 땅에서 오래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



●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창작에서 전향해 몇 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미술 전문지 〈월간미술〉 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맡아 18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것보다 여전히 아티스트에 가까운 '미술인'으로 불리기 원한다.

☑비대면 체험 ☑팬덤 ☑글로벌

문화계 '3대 열쇳말'



BTS

2020년은 예측 불허의 시대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특히 콘텐츠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때문에 2021년의 열쇳말은 '회복'이 된다. 2021년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5.8% 역성장하거나 최소 3.8%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2월 17일 '콘텐츠산업 2020년 결산과 2021년 전망 세미나'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발표했다. 전체 성장률은 최소 5.1%에서 최대 6.7%인데, 이를 주도하는 건 게임과 웹툰이다. 반면 음악, 영화, 대중예술 분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면과 비대면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체험, 팬덤(열성 팬), 글로벌 등 열쇳말 세 개를 뽑아봤다.

#비대면 체험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공연, 게임 급성장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니 기존의 대면 기반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 공연뿐 아니라 학술회의, 학술 토론회 등 행사 자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런 오프라인 행사는 디지털로 흡수되었다.

대표적인 분야로 온라인 공연,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매출액은 298억 원에 이른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아기상어〉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2억 회를 달성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는 태국 지상파 채널 시청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넷플릭스로 유통된 〈킹덤〉 〈#살아있다〉 〈나의 아저씨〉 같은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 점유율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넥슨, 넷마블, 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제작·유통사들은 자사의 운영 노하우와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분위기다. 엔씨소프트는 7월 클렙(KLAP)이라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클렙의 첫 결과물은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다.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즈원,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등의 얼굴, 목소리를 활용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다.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라는 자회사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분쟁 해결 및 다양한 부가 사업을 펼친다. 웹소설 〈금갑도룡〉과 출시 예정인 웹툰도 마찬가지. 〈미르의 전설〉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만의 분위기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이다. 게임이 바야흐로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을 차지하고, 그를 기반으로 부가 사업들이 전개되는 전망은 자연스럽다.

#팬덤

팬카페를 넘어 팬 전용 플랫폼으로 확장

콘텐츠산업의 기반이 되는 팬덤은 온라인으로 거의 완전히 들어갔다. 특히 기존에는 팬카페나 공식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이뤄지던 활동이 점차 팬 전용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기획사뿐 아니라 네이버와 엔씨소프트까지 이 분야를 선점하려고 애쓰



기생충



위버스 누리집

는 중이다.

엔씨소프트의 '유니버스'는 사전 예약 1개월 동안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전 세계 186개국이 포함된 숫자다. 강다니엘, 더보이즈, 몬스타엑스, 박지훈, CIX, 아스트로, AB6IX, 에이티즈, (여자)아이들, 우주소녀 등이 포함된 '유니버스'의 라인업 역시 만만찮다.

빅히트의 '위버스' 역시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다. 콘텐츠뿐 아니라 커뮤니티와 팬 상품(굿즈) 판매가 모두 한자리에서 이뤄진다.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엔하이픈, 씨엘, 선미, 헨리, 드림캐쳐 등이 '위버스'에서 세계 팬들을 만난다. 빅히트에 따르면 '위버스'의 2020년 상반기 매출은 127억 원, 빅히트 전체 매출의 38.3%다.

SM의 팬 전용 플랫폼은 '리슨'이다. 최근에는 아티스트와 팬의 일대일 대화를 지원하는 '디어유 버블' 서비스를 출시했다. 동방신기, 샤이니, 슈퍼주니어, 엑소, 소녀시대, 레드벨벳, NCT 등 SM 아티스트는 물론 2PM, 트와이스, 갓세븐, 스트레이 키즈 등 JYP 아티스트와 SF9, 씨엔블루 등 FNC 아티스트도 합류했다.

#글로벌

비대면과 팬덤 무기로 전 세계 문화계 장악

비대면과 팬덤이 만드는 구조가 지향하는 곳은 새삼 글로벌이다. 최근 2년간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에서 입지와 영향력을 다졌다. 중요한 건 '글로벌'이라는 말보다 실체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해외 진출은 '글로벌'이라는 말만 공유했을 뿐 그 본질은 중국-일본-동남아-남미-유럽-미국으로 변화했다. 여기에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컸다. 일본과 중국 시장 진출을 TV 방송사가 주도했다면, 남미와 유럽 진출에는 인터넷의 영향력이 컸다. 케이블방송과 IPTV뿐 아니라 유튜브가 주도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리소통망과 미디어 플랫폼이 결합된 양상이다. 유튜브와 틱톡, 트위터 같은 글로벌 누리소통망이 미디어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시장은 핵심 목표가 되고, 팬덤과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는 주요 전략이 된다. 비대면 경험을 강화하고 팬덤을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콘텐츠의 완성도는 다듬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3차 한류'는 전 세계 문화계를 장악했다. 처음부터 이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글로벌 진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콘텐츠 IP를 강화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가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나, 자사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여기에 각종 기술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나 모두 글로벌 시장을 위한 노력이다.

2020년의 예상하지 못한 위기는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이 모든 변화는 사실 수년 전부터 예상되던 일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위기 상황은 막연한 미래의 그때를 우리 눈앞으로 끌고 왔다. 이런 열쇳말이 실제로 기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 상황이 우리를 조금 더 빨리 미래로 데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



● **차우진** 음악평론가

미디어 환경과 문화 수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청춘의 사운드〉 〈대중음악의 이해〉 〈아이돌: H.O.T.부터 소녀시대까지…〉 〈한국의 인디 레이블〉 등의 책을 썼고, 유료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서 〈음악 산업, 판이 달라진다〉 리포트를 발행했다. 현재는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스타트업에서 팬 문화, 콘텐츠, 미디어의 연결 구조를 고민 중이다.

디지털의 역기능 최소화해야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건지면서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있는데, 그 방법에 디지털 전환이 있다. 정부는 기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 정부 기능, 사회기반시설 등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여기에 담았다.

디지털 뉴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사업이 '데이터 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방문 현장에서 데이터 댐을 미국의 후버댐에 빗대 한국판 뉴딜의 상징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뉴딜은 원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3년 도입한 경제·사회 정책 이름이다. 당시 미국이 후버댐 건설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듯 우리는 21세기에 데이터 댐을 구축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데이터 댐은 파급력 등을 고려해 우선 도입 과제로 선정된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기도 한다.

공익적 활용 땐 한국판 뉴딜의 유용한 기반

데이터 댐의 내용은 마치 실제 댐에 물을 모으듯 정부가 데이터를 모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의 수집·가공 등에 지원금을 대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데이



게티이미지뱅크

터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목받는 기술인 인공지능(AI) 개발과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재료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고 데이터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가 디지털 혁신의 바탕이란 점에서 데이터 댐은 순기능을 살려 공익적으로 활용하면 한국판 뉴딜의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혁신은 과학과 연구로부터 비롯되며 데이터 과학 발전을 위해선 좋은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핵심 데이터 세트 가운데 하나인 한국어 말뭉치(코퍼스)의 경우를 보자. 말뭉치란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 쓰이는 잘 정리된 문자 자료를 말한다. 자연어 처리는 음성 비서, 채팅 봇을 비롯해 활용도가 넓은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기계'를 만드는 핵심 기술인데, 현재 세계적으로 이 분야 연구는 주로 영어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영어 데이터 세트가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시배스천 루더 연구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러다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당신이 받는 정보, 교육,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위험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 언어를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만 급격히 발전하는 경우, 그 말을 쓰지 않는 언중은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마련이다. 만약 좋은 한글 데이터 세트가 많이 생긴다면 이런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 없도록 역기능 통제해야

그런데 데이터 댐 사업은 디지털 뉴딜 정책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데이터 댐은 후버댐과 다르다. 둘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후버댐의 물은 다 같은 물이지만 데이터 댐의 데이터는 모두 같은 데이터가 아니란 점이다. 그 가운데 어떤 데이터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추고 싶은 사생활일 수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다. 정부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를 (그렇지 않은 데이터와) 구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다른 여러 과제도 데이터 댐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성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다른 가치를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지능형(AI) 정부 사업의 경우 국민 개인의 맞춤형 행정을 구현한다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테지만, 개인 확인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은 동시에 감시 위험을 높이는 기술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의료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이 목표로 하는 것처럼 국가나 사회 전반을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할 경우 여기에 따라오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이란 결국 0과 1의 전기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이 더 빠르고 넓게 전달되도록 증폭하는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의 역기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



● **권오성** 〈한겨레〉 기자로 미래, 과학 등을 맡던 중 뉴욕 시러큐스 대학에서 컴퓨터 기술과 저널리즘의 융합 석사과정을 마쳤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사회와 미디어에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많다. 〈데이터 과학〉 등의 책을 번역했다. 현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현대 디자인의 탄생

'디자인'이라는 말은 그 쓰임이 엄청나게 다양하다. 디자인을 우리말로 하면 설계, 고안, 구상, 계획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설계, 고안, 구상, 계획이란 가구나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기능적인 사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생활의 설계'라는 말이 있듯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한때 디자인 산업을 홍보한답시고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각료들에게 "디자인하라 그러지 않으면 사임하라(Design or Resign)"라고 했다며 이 말이 디자인업계에서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각료들에게 디자인 산업에서 말하는 그 디자인을 하라고 지시했을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디자인 산업 또는 디자이너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료들이 디자인을 한다고 미술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전문가를 고용할 리 없지 않은가. '보디 디자인(body design)'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은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스클럽 운영자들일 것이다. 오늘날 디자인은 설계, 고안, 구상, 계획을 의미하는 뜻으로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만, 그 말이 태어난 순간에는 뭔가 더 구체적이고 고유한 일에 적용되지 않았을까?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사물은 디자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석기인이 만든 돌도끼도 디자인된 것이고, 오늘날의 첨단 스마트폰도 디자인된 것이다. 우리는 돌도끼를 보면서 "저 디자인은 석기인이 만든 것치고 참 정교하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영문 '디자인(design)'은 근대에 생긴 근대적인 개념이다. 그것을 한번 추적해보자.

공예가와 산업체 운영자의 만남

산업혁명이 일어나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물건은 모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공예'라고 한다. 동서양의 모든 공예가들은 자신이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고안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 직접 손으로 만들 경우 그가 만든 것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조선시대 도공이 귀신같은 솜씨로 수십 개의 사발을 빚을 때 언뜻 보면 그 사발들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갑자기 예술 의지가 발동해 즉흥적으로 다르게 생긴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재료와 형태, 마감 상태, 즉 디자인은 도공의 통제 아래 있다. 이것이 공예가의 큰 자부심이고 즐거움이다.

하지만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직공들은 기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물건의 고안과 구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물건을 만드는 일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애정을 가질 수도 없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장주는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므로 물건의 만듦새와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


2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생산의 주요 수단은 기계이므로 숙련된 직공을 고용할 필요도 없어진다. 기계 기술은 사람이 오랜 시간 축적한 숙련된 솜씨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기계 생산에 따라 물건의 질과 아름다움은 수공예 시대보다 후퇴한다. 하지만 소수의 귀족과 부유한 자본가는 여전히 몰락하지 않은 소수 공예가가 만든 화려하고 장식적인 물건을 소유하고 자랑한다.

산업혁명 시기의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에 저항한 영국인 윌리엄 모리스는 수공예 운동을 일으킨다. 질 좋은 물건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예술'이라는 신념을 갖고 자신 같은 공예가들이 만든 아름다운 물건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지기를 꿈꿨다.

그의 의지에 따라 예술공예 운동이 일어났지만, 공예가들이 만든 물건은 수량도 많지 않고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그 미학적 가치는 형편없었다.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이들, 즉 공예가들은 공장을 무시했고,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용품은 방치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 산업국가로 발전한 독일은 어떤 나라보다 질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자 공예 교육에 힘썼다. 무엇보다 영국의 공예가들이 기계를 거부하고 공장을 무시한 것과 달리 독일 공예가들은 기계의 도입을 수용했고, 공장의 생산에 참여하고자 했다. 1907년에 설립된 독일공작연맹은 공예가와 산업체 운영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 공장의 물건은 이제 '디자인'되었다. 여기에서 디자인이란 그것을 구상한 사람이 생산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디자이너는 재료를 선정하고 형태를 구상하고 질감과 색채를 결정하지만, 공예가처럼 그것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자신이 구상한 설계도를 공장에 넘기는 것이다.

디자인을 산업 경쟁력의 무기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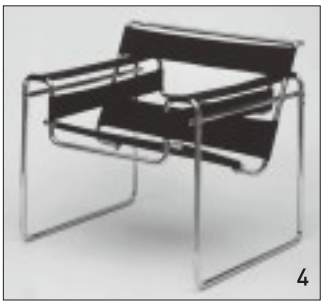
1919년 설립된 건축공예 학교인 바우하우스는 독일공작연맹에서 시작된 예술가와 산업의 만남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 학교는 물건을 더욱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 독일은 대단히 궁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집이든 물건이든 기하학적인 형태로 아주 단순하게 디자인했다. 그래야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재료 역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쉬운 것을 선택했다. 예를 들면 늘 나무로만 만들던 의자를 강철 파이프로 만드는 식이다.

독일의 산업진흥 기관인 독일공작연맹과 디자인 학교인 바우하우스는 이렇게 모던 디자인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공장은 예술교육을 받은 이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게 되었다. 공장에서도 미적으로 우수한 물건이 생산되었다. 그들이 추구한 혁신은 단지 산업제품의 아름다움과 경쟁력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의 예술공예 운동이 추구했던 이상, 즉 "더 질 좋은 물건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그 공동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이상이야말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디자인 개념의 핵심인 것이다.

모더니즘 디자인은 전후 미국에서 받아들여졌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최대 최고의 산업국가인 미국은 디자인을 산업 경쟁력의 무기로 활용했다. 이제 디자인은 제품을 차별화해서 기업의 판매 곡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초의 목표, 그 '착한' 이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4

1 독일공작연맹의 핵심 멤버인 페터 베렌스가 디자인한 AEG사의 전기 주전자 **2** 미국인 레이몬드 로위가 디자인한 연필 깎기. 미국의 디자인은 새로운 스타일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삼았다. **3** 윌리엄 모리스의 회사에서 생산한 서섹스(Sussex) 의자 **4** 바우하우스의 학생인 마르셀 브로이어가 최초로 금속을 이용해 만든 B3 의자



● **김신**

홍익대 예술학과에서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일했다. 현재 디자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년의 탄생〉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공감 리뷰



안녕하세요! 여느 책과 늘 다르게 표지부터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받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너무도 고마운 책이에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온 국민이 초조하고 상심한 이때 더 '소중한 나눔을 주는 특집기사'가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역물품 정보를 점자로 옮겨주기도 하고, 무료급식소 운영을 대체한 식료품 꾸러미도 등장했네요. 학생들도 자발적 헌혈 릴레이를 통해 나눔을 표현했고, 특히 춥고 외로운 농촌 일손 돕기에도 150만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올 한 해 〈공감〉이 있어 많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가까이에서 삶의 길벗이 되어주세요.

서정민 전남 순천시 서면



거의 독점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 배달서비스 생태 환경을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힘쓴다는 반가운 내용이 눈에 띄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독과점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전에 공공에서 먼저 현행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 시도를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재해나 고용불안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지지해야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선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사진 공감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 조카와 나들이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 유독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 조카를 못 본 지 꽤 되었어요. 2021년 봄이 되면 날씨도, 코로나 상황도 좋아져 다시 조카와 놀러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네요. 다음에는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사진을요.

황순하 서울 양천구 목동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 gonggam.korea.kr
- www.facebook.com/wegonggam
- www.instagram.com/wegonggam
- 1boon.kakao.com/weekly
-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 post.naver.com/mcst_pr
- blog.naver.com/mcst_pr
- ridibooks.com
- digital.kyobobook.co.kr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곳입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도 되고 사진마을 참여마당
(http://photovi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021년 1월 13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예술인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로**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찾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됩니다.

01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가입대상자

프리랜서 예술인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등

- 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 단, 단기예술인(1개월미만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 1년도 고용보험 적용

가입관리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등

[고용보험가입관리]



사업주

[하나의 사업체 원수급인·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발주자



원수급인

02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수급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24개월간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

| 지원액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 X 지급기간



고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

* 단기 예술인의 경우 일정 정도 이상 근무시 대체로 인정 ** 단, 예술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재사유 없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출산전후급여

| 대상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 수급요건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 지원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최대 200만)
- 최대 90일(3개월) 동안 지급

* 수급요건, 신청기한,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 가능

03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1인 예술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고용보험료의 30~90%	고용보험료의 30~50%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7 www.mcst.go.kr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 ✔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 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 ✔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손씻기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

[가정에서 생활할 때]

- **연말·연시 기간**은 **동거 가족단위**로 **소규모**로 보내기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
-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공통 방역수칙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행사 진행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